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영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
활동을 위한 부모지원 실행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강 민 정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
활동을 위한 부모지원 실행연구

장 영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강 민 정

인 준 서

강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한 실험연구이다. 만 1세 영아가 그림책을 보는 상황을 관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영아와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2.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방안은 어떠한가?
3.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와 어머니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만 1세 여아 소연이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사촌 조카인 소연이와 소연이의 어머니, 본 연구자이다. 연구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일과 중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접하는 모습과 영아와 어머니가 그림책을 보는 상황을 관찰하고,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Kemmis와 McTaggart의 자기반성적 실험연구 사이클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하며, 실행 및 관찰을 거친 후 반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계획을 하는 순환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하며 동영상 촬영하였고, 어머니 면담, 관찰자 노트, 반성적 저널,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과정은 지도교수 및 유아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유아교사, 어머니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물리적 환경 요인과 어머니 요인이 나타났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문제점은 주의집중을 분산시키는 환경, 영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 그림책, 발달적 특징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 제공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그림책 읽어주기,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맞는 그림책의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 적절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정에서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실행하였다.

먼저 물리적 환경 요인 개선을 위해 놀잇감들을 정리하여 주변 환경을 정돈하였고, 그림책을 영아의 눈높이에 맞는 칸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영아가 그림책을 떨어뜨리는 놀이는 즐겼으나 그림책 보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눈높이가 맞는 칸에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그림책의 표지가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또, 만 1세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한 후 반응을 보며 순차적으로 제공해주어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어머니 요인 개선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 보기 상황에 대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며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해보도록 하였고, 만 1세 영아의 발달 단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시기 영아들이 그림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 또, 만 1세 영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보여주는 방법, 그림책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놀이,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책

보기 상황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영아와 함께 자연스러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림책 뿐 아니라 영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셋째,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와 어머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영아는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영아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그림책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림책을 스스로 보려 하거나 그림책을 선택하여 어머니에게 내밀며 함께 보고자 하였다. 또, 그림책에 보다 친숙해지며 그림책을 다양한 놀이에 활용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고,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는 일방적인 그림책 읽기에서 벗어나 놀이를 하며 그림책을 보여 주었고, 생활 속에 그림책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며 활용하였다. 또, 연구초기 영아와 함께 그림책을 볼 때 나타나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모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이나 목소리, 억양 등이 달라졌고, 영아가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서 그림책 보기를 진행해나갔다.

연구과정에서 어머니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나감에 따라 영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나타냈고, 이러한 영아의 반응에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더욱 노력하였다. 이러한 순환작용은 영아와 어머니가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데 촉진제가 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7
II. 이론적 배경	8
1. 영아와 그림책	8
1) 영아기 발달	8
2) 영아를 위한 그림책	10
3) 영아의 그림책 보기	13
2. 어머니-영아 간의 그림책 보기	14
1) 어머니-영아 간의 그림책 보기의 중요성	14
2) 어머니-영아 간의 그림책 보기 상호작용	16
III. 연구 방법	20
1. 실험연구	20
2. 연구 참여자	21
3. 연구 환경	26
4. 연구절차	28
5. 자료수집 및 분석	32

IV. 결과 및 해석	36
1. 가정에서 소연이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	36
1) 물리적 환경 요인	36
2) 어머니 요인	44
2. 그림책 보기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부모지원 실행과정	52
1) 그림책 관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	52
2) 부모 지원을 위한 실행	65
3.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소연이와 어머니의 변화	73
1) 소연이의 변화	73
2) 어머니의 변화	80
V. 논의 및 결론	87
1. 요약 및 논의	87
2. 결론 및 제언	97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 단계 및 기간에 따른 세부내용	28
---------------------------------	----

그림 목 차

<그림 1> Kemmis와 McTaggart의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	21
<그림 2> 소연이네 집의 거실 환경	2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A엄마 :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혀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는 책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

책을 그냥 물고 던지기도 해.

B엄마 : 지금부터 책을 좋아하게 해줘야 나중에도 잘 본다고 하던데.....

내가 읽어주려고 하면 잘 보지를 않아.

C엄마 : 우리 아이는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책을 막 아무렇게나 넘기고,

돌리고 난리나. 책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큰일이야.

B엄마 : 나중에 공부 잘하려면 책을 많이 보여줘야 한 대.

요즘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수학을 못 푼다며?

A엄마 : 내가 아는 언니는 생각해보니깐 애기 책을 사는데 천만원 넘게

들었더라. 이 책 저책 사다보면 그렇게 된대. 그럴 수밖에 없대.

C엄마 : 그런데 책을 좋아해야 말이지. (한숨)

(2012년 8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과의 대화.)

책이 지닌 가치와 책보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책보기에 두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책보기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던 수학조차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개편이 되면서 자녀의 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교육이나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사 등을 보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는 습관을 길러줘 많은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영경(2000)은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시기는 0~3개월 이전이며, 그림책을 접

하는 유아의 연령이 점차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책보기의 관심 대상이 유아에서 점점 더 어린 연령대의 영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북 스타트 운동'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보기를 지원해주는 사회적인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어머니들과의 대화에서처럼 여전히 부모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영아기에 주로 경험하게 되는 그림책은 글(text)과 그림(illustration)이 결합하여 이야기를 엮어가는 책으로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글자만으로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시각화하여 주는 책이다(이대균 외, 2006). 그림책은 보통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책으로 삽화가 들어간 책과는 달리 글과 그림의 비중이 같거나 그림의 비중이 글보다 훨씬 높은 책을 가리킨다(현은자, 2000). 이와 같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상호보완하며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과는 다르고 영아에게 있어서는 그림책 속의 그림이 그 이야기의 내용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간 발달 단계에서 보면 영·유아기는 모든 성장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신체 · 사회 · 정서 · 인지 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영아기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림책은 영아에게 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또, 그림책은 영아가 처음 접하는 문자 언어이자 시각적인 매체로써 영아에게 기쁨,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장영희(2002)는 그림책은 시각적인 영상을 통해서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나 그림의 내용이 전개되는 상황을 알게 해주므로 영아는 즐거운

놀이로 그림책을 대한다고 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조화 속에서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예술적인 잠재력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책을 통한 경험은 풍부한 의사소통의 기회와 영아의 정서 · 언어 · 사회성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은주, 2002). 영아기의 그림책은 영아에게 기쁨을 주고 상상의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언어발달, 정서발달과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매체인 것이다(한지연, 2009).

McCormick과 Mason(1984)은 그림책은 영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고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여 다양한 현상을 알게 해주고, 그림책 읽기를 통해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영아 자신의 지식을 확대하고 어휘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정선명, 2012 재인용). 또한 영아는 그림책을 통해 이야기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고 듣는 태도를 기르며, 읽기를 위한 긍정적인 태도 및 이야기 구성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Frick(1986)은 그림책을 읽는 활동은 영아들로 하여금 듣기, 읽기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키고, 쓰기를 자극하며 즐거움과 여유를 주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영아기에는 언어의 기초가 발달하게 되면서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서 글을 읽지 못하므로 성인이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한다. 마쓰이 다다시(1990)는 아기들이 그림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며 성인이 적극적으로 그림책을 보여주고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기의 관심이 그림책으로 쏠린다고 하였다. 이상금과 장영희(2003)는 영아들에게는 책을 읽어준다고 하기보다는 영아와 함께 그림을 보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였다. 영아는 어머니가 읽어 주는 이야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이해하고 자신감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

며,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 이로써 안전, 소속, 성취, 사랑과 애정, 이해, 심미적인 욕구 등이 충족되어 영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Strickland & Taylor(1989)도 책과의 경험이 즐겁고 부드러운 양육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양육자와 영·유아 간에 친근감을 형성하여 유치원이나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한바 있다(한지연, 2009 재인용). 이는 영아들은 감각적으로 그림책을 탐색하지만 글을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어린 영아들의 주 양육자는 주로 어머니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게 된다. 이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영아의 그림책 보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영아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림책 경험의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영아와 함께 가정에서 그림책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영아와 함께 책보기를 하는 성인의 경우, 습관적으로 글자에 먼저 눈이 가고 그것을 소리 내어 읽는 것으로 읽기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아는 직관적인 눈으로 그림을 통해 텍스트 이상의 것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이송은, 2006).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성인들은 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경험시켜주는 방법을 모르고 단순히 그림책 안의 글씨를 읽어주는 것이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경험을 시키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부모들은 적합한 그림책 선택, 환경조성, 적절한 상호작용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가정에서 영아인 그들의 자녀에게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지원해주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림책 보기가 영아들에게 있어 효과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영아가 감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그림책을 선택하여 제공해주고, 영아들의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책과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영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서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최은주, 2009) 부모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영아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라서 대응하는 상호작용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영아와 그림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주로 성인과 영아간의 상호작용을 분석(고진숙, 2004; 김금주, 2000; 김명숙, 2008; 김정아, 2006; 오진희, 2000; 채유진, 1998; 최은주, 2002)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대부분 성인과 영아의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 특성의 범주를 정한 후 관찰을 통해 그것이 나타난 빈도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중 1세 영아의 책에 대한 경험과 부모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1세 영아는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책 읽기 경험을 보여주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도 영아의 월령에 따라 달라지며 영아는 그것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최예린, 2010). 이러한 연구에서는 영아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영아 대상 그림책 관련 연구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어린이 집에서 교사들의 그림책 읽어주기 개선을 위한 실험연구(마미애,

2010)와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영아들이 각각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 지 영아들의 행동의 범주를 정하여 관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한지연,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영아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에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구들을 가정의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는 성인의 역할보다 영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 만 2세 영아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음을 분석한 연구(최혜경, 2008)와 어린이 집에서 만 2세 영아가 그림책에 친숙해지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정선명, 2012)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영아는 이전 경험을 단서로 하여 그림책에 공감하였고, 그림에 집중하지만 글과 그림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상놀이에 책의 내용을 활용하고, 일상놀이 소재로 삼았다. 또, 혼자 또는 또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을 관찰한 연구(한유미, 2008)도 있다. 이 연구들 모두 성인의 개입 없이 영아개인이나 또래들 사이에서 나타난 반응을 관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영아의 반응을 이해하고 부모의 책 읽기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미흡한 실정이다.

2세 영아가 책에 대해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지 어린이 집 종일반에서 관찰하면서 분석하고, 더 나은 책 읽기 모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한 실험연구(이송은, 2006)가 있다. 이 연구 또한 환경구성이나 상호작용 전략의 맥락은 비슷하겠지만 어린이 집에서 만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만1세 영아인 자녀에게 효과적인 그림책을 경험시켜 주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영아와 그림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대상연령을 2세로 하며, 연구자가 자연스러운 관찰 상황만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반성적인 사고를 하는 연구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는 가정에서 만 1세 영아들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위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관찰을 통해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정을 거쳐 부모를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와 어머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영아의 발달을 바르게 인식하고,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 활동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2.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방안은 어떠한가?
3.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와 어머니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영아와 그림책

1) 영아기 발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발달을 거듭한다. 이 중 영아기는 모든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신체·운동 기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인지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김경희, 2005). 영아의 요구와 특징은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시에 개개 영아는 자신만의 고유한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다.

생후 1년 이후는 영아의 신체발달 속도가 많이 감소하고, 내적으로 정교화 되는 시기로 혼자 설 수 있게 되며, 걸음마를 시작하게 된다. 영아는 걷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행동이 증가하고, 전신을 움직여 주변의 사물과 공간을 탐구하고 이를 즐긴다. 또한 손가락 조절 능력은 블록을 서너 개 정도 쌓을 수 있고, 책장을 두세 쪽씩 한꺼번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게 된다.

전 생애에 걸쳐 대부분의 중요한 기본적인 지각능력은 생후 1년 사이에 거의 완성된다. 이 시기는 이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따라 어떠한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탐색 행동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즉,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다는 점에서 시행착오행동(trial-and-error)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장영희, 2002). 이 시기 영아들은 단순한 행동과 단어와

행동을 기억하여 모방을 한다(김정원, 남규, 서정숙, 2011). 영아는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한 행동을 관찰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한 행동을 모방하기도 한다. 또한 13개월 영아들도 즉각적으로 또는 1주일 후에 회상할 수 있다고 한다(Bauer & Hertsgaard, 1993).

출생 몇 달간의 구어 발달은 소리를 가지고 실험하듯이 노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아기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즐거움과 고통을 표현하므로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Morrow, 2012). 6개월이 되면 웅얼이를 시작하고, 대략 12개월경에 한 단어로 말을 하게 되며 18개월경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풍부해지고, 보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말을 하게 된다. 어휘 습득은 사물에 대한 개념과 연결되므로 실제 사물과의 경험이나 책의 그림을 통한 사물에 대한 개념 습득은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의성어를 흉내 내면서 반복하고 운율 있는 노래를 즐겨 듣는다(서정숙, 남규, 2006).

사회 · 정서 발달 측면에서 이 시기의 영아들은 부모와의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류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시기 영아들에게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안정된 애착 발달은 자아 존중감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장영희, 2002).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와 그림 속으로 몰입하게 되고,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 자녀는 어머니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이영경, 2000).

만 1세 영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고 내적 감정과 외적 행동이 나타나며 낮가림과 격리불안을 겪는다(김정원, 남규, 서정숙, 2011). 영아가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울음과 찡그림, 미소와 웃음과 소리 지르기, 뒤로 숨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림책은 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불안, 공포, 질투 등의 감정을 건강하게 체험하도록 돕고 기쁨과 의기양양함, 애정 등을 다양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이송은, 이선영, 2005). 생후 1년여 동안 신뢰감이 확고히 생성된 이후 약 2년간은 유아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과 의지를 지닌 인간임을 확인하는 데에 집중된다. 이 시기에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자율의식이다(박선희, 김현희, 2006).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표현 방식이 세련되지만 기본이 되는 정서는 영아기에 완성된다(이춘희, 2005).

이러한 영역별 발달 특성은 영아마다 개인차가 있어 나타나는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고유한 패턴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영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제공하며 영아를 능동적 독자로서 인정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혜경, 2008).

2) 영아를 위한 그림책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제시되는 형태이며 글과 그림이 통합되어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문학이다(송명희, 2010). 영아에게 그림책은 공감각적 매체로 성인이 읽어서 들려주는 청각적인 매체와 언어의 이미지화에 의존하는 시각적인 매체가 동시에 작용하여 인간 체험의 교류를 경험하는 독특한 장르이다(황주연, 2011). 그림책은 영아에게 있어서 그림을 보고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듣는 책이며 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원, 2008). 또 영아는 그림책을 통해 즐겁고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림책 속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만나기도 한다(이송은, 2006).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단순하고 정확한 개념을 줄 수 있으며, 이야기 전개에서 예측이 가능하며, 등장인물은 영아들에게 친숙한 대상, 살아 있고 생동감 있는 인물이 좋다(김정원, 남규, 서정숙, 2011). 이민경(2004)은 영아들은 야생동물 보다는 주변에서 자주 접한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사물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친근한 내용을 담은 책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아직 주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아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송은(2006)은 영아들이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불안, 공포, 질투 등의 감정을 건강하게 체험하도록 돕고 기쁨, 애정 등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림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림책의 문체는 운율이 있거나 반복적이고 대화체로 표현되어 있으며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좋다(김정원, 남규, 서정숙, 2011).

그림책 속의 그림은 본문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예술성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영아들이 그림만을 보고도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고, 밝게 그리는 것이 좋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아들을 위한 좋은 그림책은 오랜 동안 입에 물거나 책장을 함부로 넘기는 것에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형겅책, 비닐책, 보드북으로 된 책이 적합하다고 하였다(Brown, 2003; 최예린, 2010 재인용). 김세희(2000)는 큰 그림이나 패턴이 있는 보드북, 세탁할 수 있는 형겅책, 부드러운 비닐 책 등이 영아에게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영아들에게 적합한 책은 보드북, 형겅이나 비닐로 된 책으로 자신의 생활 모습을 담은 일상생활 그림책이나 친숙한 사람이나 동물이 담긴 것이다. 영아들이 다양하게 탐색해볼 수 있고 노랫말처럼 부르면

서 놀이를 할 수 있으며, 그림만 보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적합하다.

김세희(2000)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인과 유아간의 질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언어 발달, 심미적 감상력의 발달을 도와주므로 유아기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Burke(1990)는 그림책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책은 유아들이 문해 기술과 사고 기술이 생기도록 실습할 기회를 줘 읽기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시킬 수 있고, 글씨를 못 읽더라도 그림을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인공과 등장인물에 쉽게 빠져들고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야기 문법, 스키마,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아들이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언어 기술이 세련될 수 있도록 해주며, 미술적 · 예술적 요소를 감상하면서 간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림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림책을 보고 들음으로써 정서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으며, 이야기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반응을 더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김현희, 박상희, 2008 재인용).

Schickedanz(1986)는 유아기에 질 좋은 책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유아에게 갖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문해 능력의 발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야기의 스키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아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어떠한 것인지 예견할 수 있고, 읽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발달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며, 상상력과 추론 능력이 발달하고, 책을 사랑하며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학경험을 통해 여러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삶에 관련지어 현실 생활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기를 수 있고, 유아 자신에 대해 잘 알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신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조성원, 2008 재인용).

이러한 가치를 지닌 그림책의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영아에게 적절한 그림책을 선택하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그림책은 영아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매체로 성인의 도움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아에게 좋은 그림책을 제공해주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 영아의 그림책 보기

영아들은 성인들이 책을 대하는 것과 다르게 책을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아들은 오감을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책을 탐색하고자 한다.

Schickedanz(1999)는 영아의 책 다루기 행동은 책에 대한 신체적 조작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책 다루기 행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2~4개월 영아는 그림에 시선을 주지만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5~10개월 영아는 책을 잡고 입으로 가져가서 빨고 씹고, 흔들고, 구기고, 휘두른다. 6~8개월 영아는 양손을 이용하여 하드보드지 책을 쥐고 책장을 열고 닫으며 책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8~10개월 영아는 성인에게 책을 주고 읽어달라고 하고, 읽기를 한 후 책을 받아서 다시 성인에게 건네 주면서 반복적으로 읽어달라고 요구한다. 8~12개월 영아는 현저한 신체적 조작으로 책 다루는 행동은 감소하고 시각적 주의집중은 증가하며 11~15개월 영아는 책장을 잘 넘기고 거꾸로 놓은 책을 돌려놓거나 그림을 바로 보

기 위해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16~20개월 영아는 그림이 위아래가 잘못 되었을 때 그림을 바로 놓으려는 시도로 책을 돌린다.

Snow와 Ninio(1986)에 의하면 영아는 그림책 읽기를 통해서 책은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읽는 것과 책 읽기에 있어서 책은 조정하고 독자는 따라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영아는 그림책 속의 그림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표상하여 명명하기 위한 것이며 정적인 것이지만 사건을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책의 사건은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일어나고, 책은 독자적인 허구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영자와 이종숙(1996)은 만 1, 2, 3세 영아의 읽기 행동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 발달 순서는 ‘말없이 그림 쳐다보기’, ‘단순 소리내기’, ‘손으로 책의 그림 지적하기’,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 명명하기’, ‘명명하기’, ‘책 용알이’,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기’,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이야기 꾸며 말하기’, ‘단어나 구절을 기억하여 이야기하기’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들은 감각적으로 책을 탐색해보다가 점차 정교화 된 행동을 보이며, 책의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영아들은 그림을 보고 명명하거나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 등 기초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영아들이 성장을 해나갈수록 자신들만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그림책을 탐색하고,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 그림책에 대한 반응도 변화하게 된다.

2. 어머니-영아 간의 그림책 보기

1) 어머니-영아 간의 그림책 보기의 중요성

영아는 대부분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림책을 처음 접하게 된다. 영아는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그림책을 접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림책 보기는 영아와 어머니 사이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영아와 어머니 둘 모두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게 하는 활동이다(육길나, 2008). 그러므로 그림책 보기에 있어서 영아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쓰이 다다시(1990)도 그의 저서에서 “아이에게 혼자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책을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행위는 어른과 아이가 정신적으로 손을 잡고 떠나는 신비한 여행이다. 책을 정성껏 읽어 주어서 어린이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풍부한 공감과 기쁨이 생겨난다.” 라고 하면서 책을 통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주장하고 있다.

영아는 자발적으로 환경을 바꾸거나 선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있느냐에 따라 책 읽기의 효율성이나 책에 대한 개념 형성이 달라지게 된다(이송은, 2006). 김세희(2005)는 아이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그림책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정리할 때 그림책 보여주기가 즐겁고, 애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림책 보기에 연관된 느낌은 매우 긍정적이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의 발달이 초기의 책 보기 경험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정명숙, 2012 재인용).

어머니는 자녀를 무릎에 올려놓고 그림책을 들려주기도 하고 노래 소리와 따뜻한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영아기에 성인의 무릎에 편히 앉아 책을 읽는 과정은 영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책을 읽는 경험이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한다(오애순, 2004). 영아는 혼자 책을 보는 것보다 성인과 함께 보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무엇보다도 즐겁다. 특히 성인의 무릎 위에서 이루어지거나 몸을 가까이 대거나 얼굴을 마주보거나 성인과 영아가 나란히 앉아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책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최고로 행복한 체험이다(정지현, 2009).

영아가 그림책을 보며 의미 있는 성인과 함께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나누는 것은 영아로 하여금 읽기와 같은 경험을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며, 영아의 언어 발달과 기술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Zeece & Churchill, 2001; 한유미, 2009 재인용). DeBaryshe(1993)는 7개월 때의 그림책 읽기 활동으로 2세 때의 언어발달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하면서 그림책 읽기를 이른 영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노정임, 2012 재인용). 인지발달 측면에서도 Jensen(1984)은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 활동은 유아의 인지발달을 자극해 사고를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김지윤, 2002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와 영아간의 그림책 보기는 영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발달을 도와 영아의 성장과 발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경험임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영아 간의 그림책 보기 상호작용

영아기는 스스로 그림책을 읽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의 도움을 통해 그림책을 접하게 된다. 영아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아들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 경험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어머니는 애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아가 그림책 보기를 즐거워 할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고, 적절한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eale(1981)은 부모들이 질적으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며, 이는 영아의 문해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채유진, 1998 재인용). DeLoache(1984)는 어머니들이 영아들 연령에 따라 그림책 읽기를 할 때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가장 어린 12개월 영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볼 때 어머니들은 질문을 적게 하고 간단한 그림에 대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명하기 위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영아의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어머니는 자신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영아로 하여금 정보를 듣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야?”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기억에 의존하여 유아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ulzby(1985)는 부모는 아주 어린 유아에게 그림 속 사물에 명칭을 붙이거나 코멘트를 해주다가 점차 내용을 명료하게 이야기 해준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점점 더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 독립적으로 읽게 된다고 하였다(김지윤, 2002 재인용).

Kleeck, Alexander, Vigil & Templeton(1996)은 영아가 6개월에서 12개월이 되기까지 한 달 간격으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책 읽기 활동을 녹화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들은 초기에 영아의 주의를 끌고 참여를 촉진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나, 점점 책에 관한 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고하였다(고진숙, 2004 재인용)

Newland, Roggman과 Boyce(2001)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을 크게 신체환기, 포인팅, 행동요구, 제스처, 신체접촉, 공감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언어적 행동은 언어적 행동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영아와 대화할 때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였다(노정임, 2012 재인용).

정인아(2005)는 어머니와 유아의 신체적 접촉이 없을수록 어머니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순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읽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참여에 대해 어머니가 민감할수록 어려운 책을 읽고 지속하려는 도전감과 인정받으며 느끼는 희열이 높았으며, 읽기를 성공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그림책 읽기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로 상호작용할 때 자녀들은 문해 관련 활동들에 대해 회피하거나 싫증을 내는 행동을 보였다(Baker, Scher & Mackler, 1997; 육길나, 2008 재인용)

이처럼 부모는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잘 선택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읽어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림책을 영아에게 얼마나 읽어주느냐 보다 어떻게 읽어주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Honig(2000)은 밝고 색채가 다양한 그림이 있는 그림책을 읽어줄 것을 권장하면서, 영아와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 영아를 어머니 무릎에 앉혀놓고 읽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림에 대해 흥내를 과장되게 하거나, 재미있게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읽어주고,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변형시켜서 읽어주며, 영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글의 긴 문장을 축약하거나, 변화를 주며 읽어줄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형의 질문을 사용하고, 사물의 이름보다 사물의 기능이나 특징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아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해 주며, 반복하고, 확장하고, 명료화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은 영아의 언어 발달에 촉진적 역할을 한다. 더불어 영아들과 그림책을 읽을 때에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

거나 ‘이것 좀 봐!’와 같이 영아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영아와 어머니가 그림책을 보면서 나누는 상호작용 유형은 영아의 언어발달 및 행동 특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영아와 그림책을 보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고,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질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실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 활동을 위해 부모를 지원하고자 실행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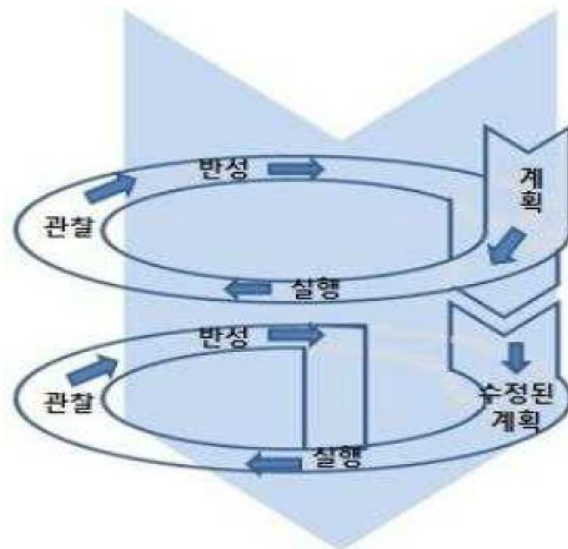
Thompson(1988)은 실행연구란, 교실 혹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여 체계적으로 사정하고, 상황 또는 행위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하면서 행동의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이용숙 외, 2011 재인용). 실행연구는 활동과 변화에 관심이 있는 연구로 대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과 협력하여 실재를 탐구하고 발견된 것을 근거로 실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Hatch,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실행연구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자는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하고, 부모 지원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만 1세 영아의 가정에서의 그림책 보기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실행 방안을 계획·실천 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실행연구를 하였다.

실행연구는 보통 신중한 관찰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 범위를 숙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변화를 설계하고, 변화를 실행하고, 그것의 효과성을 사정하는 순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Hitchcock & Hughes, 1995; Hatch,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Kemmis와 McTaggart(1998)의 자기반

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이용숙 외, 2011 재인용)을 기본으로 하여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하며, 실행 및 관찰을 거친 후 반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계획을 하는 순환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림1> Kemmis와 McTaggart의 자기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



2. 연구 참여자

1) 연구자

어린 시절 나는 겁이 많은 아이였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나는 밤에 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여러 가지 괴물이 나타나는 상상을 했다. 그림자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수많

은 괴물들이 상상되어 결국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옆에서 이야기 해주며 날 지켜달라고 아버지를 옆에 앉혀놓곤 했다. 명절 날 할머니 댁에서 잠을 청할 때에도 익숙하지 않은 잠자리에 뒤척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며 여러 가지 옛날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할머니가 조용히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길에 어느새 마음을 놓고 잠들 수 있었던 따스한 느낌과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자게 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기대했던 설렘은 아직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책에 관심을 보였다. 사진으로만 알 수 있는 매우 어린 시절의 나도 그림책을 보고 있거나 주변에 그림책들이 많이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집에는 부모님이 사주신 여러 권의 책과 다른 사람이 이제 보지 않는 다며 물려준 책 등 다양한 책들이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기 시작하였고, 한 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다 읽을 때까지 계속 앉아 있다가 쥐가 난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나는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상황에 몰입하여 내가 그 주인공이 된 듯한 상상의 나래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혼자만의 동화를 만들어 주인공과 상황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유아교육과에 진학한 후 내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유아 문학의 세계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인형극 조로 활동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동화를 찾아서 읽어보고 극으로 각색한 후 인형과 무대를 만들어 인형극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흥미롭게 참여하였고, 우리가 준비한 인형극을 직접 무대에서 시연해보고, 그것을 본 유아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유치원에 취업하여 총 5년 동안 만 4세와 5세 학급을 운영하였다. 그 당시 유아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동화를 들려주고, 연계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으며, 유아들과 함께 새로운 동화를 짓는 활동도 주제 별로 지도했었다. 이때까지 나는 유치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유치원 대상 연령인 만 3~5세 용 동화의 종류와 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는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 유치원 교사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자 서울에 오게 될 때마다 평소 친밀하게 지냈던 사촌오빠 집에 자주 방문하여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결혼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사촌 오빠 부부에게 소연이라는 여자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사촌조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특히 연구자가 유아 교육을 전공한 후 유아교사로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소연이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해주기를 기대하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소연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소연이는 책장을 닫아버리고, 입에 물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아 어머니가 걱정을 나타내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에게 책을 건네며 ‘소연아! 고모한테 책 읽어주세요, 하자.’ 라고 하였지만 소연이는 별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자도 유치원에서 유아들에게 다양한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주고, 여러 가지 관련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음에도 만 1세 영아인 소연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망설이게 되곤 하였다. 연구자는 여러 번의 방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었고,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인 소연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만 1세 영아인 소연이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좀 더

흥미롭게 효과적인 그림책 보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주고자 한다. 그림책 보기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실행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가정에서 소연이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해 보고자 한다.

2) 참여 영아

본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는 2011년 7월 생으로 만 1세인 소연이라는 여자 아이이다. 소연이는 연구자의 사촌조카이다. 연구자는 소연이의 부모인 사촌오빠 부부와 친밀한 관계로 평소 소연이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소연이를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유아교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소연이의 부모는 소연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연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소연이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소연이는 외동딸이며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소연이가 기관에 다니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 시간을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있다. 소연이의 친가와 외가가 모두 가까이에 있어서 자주 왕래를 하며 양쪽 집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사촌고모인 연구자와 연구자의 언니와 함께 하는 시간도 많았다. 소연이는 양가에서 태어난 첫 아이이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편인 양쪽 집안 어른들과 최선의 환경을 제공

하고자 노력하는 부모로 인해 소연이는 다양한 놀잇감과 유아용품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잇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좀 더 높은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잇감들도 제공되어 있었다.

소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지지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주변에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서는 물론 외부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적극적인 탐색 의지를 나타냈다. 특별히 기관에 다니고 있지 않은 소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와 함께 짐보리와 문화센터에 다니며 또래들과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 이곳에서도 어머니 품안에 있으려고 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보려 하고, 새로운 아이들과 아이의 어머니들, 선생님들에게도 관심을 나타내며 먼저 다가가 친근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소연이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먹는 양이 적은 편으로 또래에 비해 몸집이 작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여 생리적 주기는 규칙적인 편이나 낮잠을 자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소연이는 투정을 부리거나 떼를 쓰기도 하지만 울다가도 달래주면 금방 울음을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는 ‘엄마, 아빠, 할미’ 등과 같은 자신이 자주 접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단어로 정확히 말하는 편이고, 쉬운 단어는 성인이 이야기 하면 그것을 비슷하게 따라서 발음하려 하였다. 이 외에는 성인이 이해하기 힘든 자신만의 말로 의사를 표현하였다.

3) 참여 영아의 어머니

본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인 소연이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여 영아의 어머니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소연이의 어머니는 30대 초반으로 자연분만을 통해 소연이를 출산하였다. 약기를 전공하여 결혼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활동을 하였으나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다. 평소 밝고, 쾌활하며 사교성이 좋은 성격으로 소연이를 대할 때에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영아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용적이고 일관된 양육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평소에 신체 접촉을 잘하며, 소연이가 나타낸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었다.

소연이를 위한 좋은 음식이나 장난감, 양육태도 등 여러 가지 육아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얻어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에게도 양육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을 자주 질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연구자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수용하고, 실천에 옮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연이의 발달을 재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육열이 과한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주변에서 여러 가지 과열된 조기교육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외부의 기관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도록 하기 보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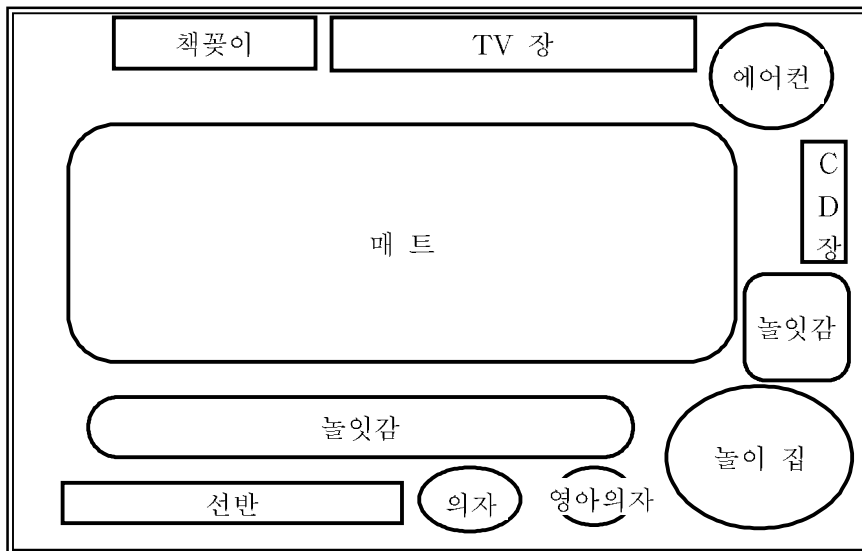
3. 연구 환경

연구가 이루어진 장소는 영아의 집이다. 소연이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곳이 바로 소연이의 집이기 때문이다. 소연이의 집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소연이가 태어난 후 소연이를 위해 거실에 있는 가구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았다. 소연이의 장난감, 영아용 의자 등 소연이를 위한 물건들 위주로 배치되었다. 소연이의 책은 기존에 거실에 있던 책꽂이와 안방에 있는 책꽂이에 나누어서 꽂혀 있었고, 어머니와의 책 보기는 주로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책보기외에도 소연이는 평소에 잠을 잘 때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가 관찰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이 대부분 이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소연이네 집의 거실환경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소연이네 집의 거실 환경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소연이가 그림책을 접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머니를 지원하기 위한 실행을 계획·실천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 단계 및 기간에 따른 세부내용

연구 단계	기간	세부 내용
초기 참여관찰 (문제인식 및 분석)	2012. 10. 15 ~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연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 소연이가 관찰자로서의 연구자의 역할에 익숙 해지도록 하기 - 소연이의 그림책 보기 실태 예비 관찰 - 어머니와의 사전 면담 - 소연이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 인식 및 분석 - 선행연구 분석
참여관찰 및 실행과정 (부모역할 지원 실행)	2012. 10. 29 ~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한 실행방안 적용 - 실행방안 적용 후 분석 및 평가 - 매번 실행방안 적용 후 분석 및 평가로 발견되는 개선 방안 모색 및 실행 - 어머니와의 심층면담

		<p><그림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 정리하여 주변환경 정돈 - 영아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그림책 제공
1차 :		
물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표지가 보이도록 배치
환경요인		<p><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에 적합한 그림책 선정하기 - 선정된 그림책을 영아의 반응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
개선		
		<p><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그림책 보여주기/ 영아가 갖는 그림책의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와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서의 문제점 스스로 인식하기
2차 :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발달단계 이해 (영아에게 맞는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 이해)
요인 개선		
		<p><상호작용 방법의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 지원 (그림책을 보여주는 방법/ 그림책 보며 놀이하기/ 상호작용 유형 범주에 대한 자료제공/ 동영상 감상/ 연구자 시범)
후기		
참여관찰	2012. 12. 31	- 실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의 소연이와 어머니의 행동 변화 관찰 및 분석
(평가)	~ 2013. 1. 9	- 전체적인 실행 과정 평가
		-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어머니와의 사후 면담

1) 초기 참여관찰 : 2012. 10. 15~ 2012. 10. 26

연구자는 주 2회씩 총 4회에 걸쳐 소연이의 가정에 방문하여 소연이와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였다. 소연이는 연구자의 사촌조카로 관찰을 계획하기 전부터 충분한 만남을 통해 이미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에 연구자가 방문하면 당연히 함께 놀이를 하는 것으로 여기며 반겼다. 이러한 반응은 어머니와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관찰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연구자가 함께 놀아주는 고모가 아니라 관찰자라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처음에 소연이는 어머니보다 연구자와 함께 놀이를 하려고 하고, 연구자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점점 연구자가 놀이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 관찰하는 것에 익숙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미 소연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를 위해 소연이의 그림책을 대하는 태도, 그림책과 관련한 발달 등의 기초적인 이해를 하였다. 그 결과 소연이는 놀이 상황 중에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하는 경우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그림책을 보여주려는 상황에서도 그 지속시간이 짧게 나타나 금세 다른 놀이를 하려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연이가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물리적인 환경요인과 어머니 요인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사전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였고, 어머니의 연구 참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2) 참여관찰 및 실행과정 : 2012. 10. 29~ 2012. 12. 21

참여관찰 및 실행은 8주 동안 주 2회씩 이루어졌는데, 소연이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있어서 한 주는 1회의 관찰만을 하게 되어 8주 동안 주 2회씩 총 15회의 관찰 및 실행이 이루어졌다.

초기 참여 관찰 기간 동안 파악된 문제점인 환경적인 요인과 어머니 요인을 기초로 하여 우선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할만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환경적인 요인 개선을 위해 환경 구성을 다시 하였고, 새로운 그림책을 제공하였다.

환경적인 요인 개선을 실행하면서 나타난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하며 반성하였고,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문제점 진단 및 계획 → 관찰 및 실행 → 반성’의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 요인 개선을 위해 소연이와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방해하는 어머니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한 후 개선할만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행하였다. 우선 어머니에게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영아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소연이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소연이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운 후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였다.

어머니는 연구자가 관찰을 하지 않는 날에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면 사진으로 남겨 연구자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어머니는 연구자가 동영상에 나타난 소연이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정과 실행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환경요인 개선과 같이 ‘문제점 진단 및 계획 → 관찰 및 실행 → 반성’의 반복적인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행방안은 누적적으로 새로운 실행방안과 함께 이루어져 나갔다.

3) 후기 참여관찰 : 2012. 12. 31 ~ 2013. 1. 9

참여관찰 및 실행연구 과정이 12월 셋째 주에 마무리 되었으나 그 시기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와 맞물리면서 일정을 조절하게 되었다. 소연이 가족의 크리스마스와 연말 계획으로 인해 한 주 뒤에 시작하여 2주 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다.

참여관찰 및 실행연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소연이는 그림책을 친숙하게 여기고, 그림책 보기에 흥미를 느껴하는 모습을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어머니도 그림책을 보여주며 함께 놀이를 즐기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연계를 시키며,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영상 촬영과 저널, 어머니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행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 어머니와의 사후 면담을 통해 그동안 실행을 해왔던 과정을 회상하고, 지속적인 실천에 대해 강조를 하였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의 연구 기간 동안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어머니와의 상의 끝에 관찰은 일주일에 2회씩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였다. 22회의 관찰 중 매 회마다 관찰한 시간은 대부분 4~5시간 정도였다. 영아의 집에 방문하여 약 4~5시간을 머물면서 영아의 놀이 상황이나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상황 등 다양한 그림책 보기 관련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고, 어머니와 면담을 하

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본적인 관찰 요일과 시간은 정해놓고 방문하였으나 어머니의 사정에 의해 정해놓은 요일이나 시간에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다른 요일과 시간으로 대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림책에 대한 소연이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놀이 상황을 모두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어머니와 소연이의 그림책 보기 상황도 역시 촬영하였다.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소연이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초기 참여관찰 기간에 설치 위치나 방법을 점검하고, 소연이가 캠코더를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소연이는 캠코더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기보다는 캠코더에 다가와 화면을 보면서 즐거워하였고 직접 조작하려 하였다. 그러나 점점 놀이 중에 캠코더에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며 촬영을 하는 상황에 익숙해진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캠코더를 고정시켜두기 위한 삼각대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삼각대를 들고 놀잇감처럼 이용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결국 캠코더를 삼각대에 고정시켜두지 않고, 연구자가 직접 촬영을 하거나 연구자의 언니가 촬영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모든 과정을 실행하는 동안 녹화한 영상은 그림책과 관련된 상황을 중심으로 일별로 전사하였다. 녹화된 것 중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이나 연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반응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를 거쳐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문제점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참여 관찰 과정 중 연구자가 촬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그때 인상 깊은 소연이나 어머니의 반응, 분위기 등을 메모한 관찰자 노트를 작성하였고, 연구자가 촬영을 하였을 때에도 기억해두었다가 관찰이 끝난 후 바로 메모

를 하였다. 관찰이 끝난 후 동영상을 전사하는 것과 함께 관찰이나 실행 후 연구자의 느낌이나 반성적 성찰의 내용을 담아 반성적 저널쓰기를 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어머니와의 면담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정기적 · 비형식적인 형태로 모든 연구 과정 중에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이러한 면담 내용은 실행방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어머니는 관찰하지 않는 날에 평소와 다른 소년의 그림책 보기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연구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는 반복하여 보면서 유목화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행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자료와 어머니와의 면담 자료, 관찰자 노트, 반성적 저널을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와 현장에서 영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 영아 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도 교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결정된 실행 방안을 적용해본 후 그때마다 실행 방안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을 동영상 전사 자료와 어머니 면담 자료, 관찰자 노트, 반성적 저널, 사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해 다음 실행 방안을 개선하고, 각각의 실행 방안이 개별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하였다.

모든 과정을 통해 수집된 동영상 전사 자료, 어머니 면담 자료, 관찰자 노트, 반성적 저널, 사진 자료 등은 분류와 분석의 과정을 통해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유목화 하였다. 유목화 한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 적합한 자료들을 다시 분류하여 유목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자는 적합한 주제를 찾아 연관 있는 것들끼리 범주화하기 위해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었고, 소연이나 어머니의 행동이나 상황이 불분명한 것은 다시 한 번 어머니의 확인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에서 영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 영아 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영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지도 교수의 검토를 거쳤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과정은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Lincoln과 Guba(1981, 1985; 이용숙 외, 2011 재인용)가 개발한 신뢰성 준거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즉,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연구하는 트라이앵글레이션(Triangulation)과 심층적 기술, 동영상촬영 자료와 사진, 메모, 녹음 자료 등의 참조자료의 사용,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반성적 주관성과 저널 쓰기 등을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정에서 소연이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인 소연이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소연이가 놀이를 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그림책을 접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관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소연이가 그림책을 접하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과 어머니와의 그림책 보기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 특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1) 물리적 환경 요인

그림책을 접하는 소연이의 가정 환경은 소연이가 그림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와의 효율적인 그림책 보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소연이가 책을 보게 되는 환경을 관찰한 결과 정리되지 않은 놀잇감들과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으로 인해 소연이가 흥미롭게 그림책에 몰입하기 힘들었다.

(1) 그림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환경

소연이가 잠을 자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실에서 놀이와 그림책 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거실에는 소연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놀잇감과 물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놀잇감들은 종류별로 모아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 꺼내어져 있었다. 이는 놀잇감을 종류별로 정리해놓을 수 있는 적절한 정리함이 없고, 매일 거실에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소연이의 편의를 위해 놀잇감들을 꺼내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연이는 한 가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한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다른 놀잇감을 만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놀잇감들이 소연이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었다. 수많은 자극 속에서 소연이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탐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림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색이 화려하거나 버튼을 누를 수 있으며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소연이의 흥미를 자극할만한 놀잇감들이 소연이가 그림책에까지 관심을 두기 어렵게 하였다. 게다가 소연이는 지속해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영아이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림책을 보려다가도 쉽게 다른 장난감에 눈을 돌리게 되고, 흥미가 금방 전이되어버렸다. 다음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놀잇감으로 인해 흥미가 쉽게 전이되어 그림책에 관심을 잘 갖지 않는 경우에 관한 사례이다.

소연 : (놀잇감들이 늘어져있는 곳을 보면서 앞을 걸어 다닌다.)

엄마 :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어오며) 소연아. 우리 책볼까? **엄마랑 같이 책 보자.**

소연 : (엄마를 돌아본 후 다시 몸을 돌려서 놀잇감 앞쪽을 왔다 갔다 한다.)

엄마 : (책보는 시늉을 하며) **이거 봐. 엄마는 책 보는데?**

소연 : (엄마에게 다가와서 그림책에 손을 댔다가 몸을 다시 움직여서 비행기를 집어 들고,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른 후 바닥에 다시 내려놓는다.)

엄마 : (소연이를 끌어당기려 하며) **우리 딸 엄마랑 같이 책 보자.**

소연 :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에게 다가오며) **어머!**

엄마 : (미소를 지으며) **그래. 소연아. 이거 봐봐! 엄마랑 같이 보자.**

소연 : (엄마가 보여주는 그림책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다가가 앞에 앉으려다 다시 여러 놀잇감이 놓여있는 상으로 간다. 접시와 포크를 들고 포크를 접시에 찍어서 자신의 입에 가져가며) 암~

(중략)

소연 : (엄마 말이 끝나기 전에 접시랑 포크를 엄마에게 주고 놀잇감 있는 곳으로 가서 놀잇감들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고개를 돌리며 바라본다. 후라이팬을 잡으려다가 내려놓고 다시 미키 모형 젓가락을 잡으려다 손을 뗀다. 고개를 돌리다 밀면서 놀이하는 장난감을 잡아 한 번 앞으로 밀면서 걸어간다.) 어어~

(엄마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엄마가 들고 있던 그림책을 잡는다.)

엄마 : 우리 딸 책 볼 거예요? 그럼 이 장난감을 내려놓고.

(장난감을 옆에 내려놓는다.)

소연 : (그림책을 잡고 한두 장 넘기며 엄마 앞에서 있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고, 장난감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젓가락을 집고, 뽕뽕이를 타서 발로 굴러 뒤로 움직인다.)

엄마 : 우리 딸 책은 안보고.....

(2012. 11. 2 관찰)

위의 사례에서 소연이는 엄마가 함께 그림책을 보자고 하자 웃으면서 다가오거나 그림책을 만지는 등 관심을 잠시 보이다가도 금세 포크나 접시, 밀고 다니는 장난감 등 다른 놀잇감에 주의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책을 보러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써 여러 가지 놀잇감들이 소연이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그림책을 보게 된 상황에서도 잠시 고개를 돌렸을 때 눈에 띈 놀잇감에 금세 주의를 기울이며 결국 제대로 그림책을 보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찰결과 이는 소연이의 주의를 끄는 여러 가지 놀잇감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모두 펼쳐져 있기 때문으로 보여 졌다. 한 가지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많은 자극들이 한꺼번에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림책에 관심을 나타내었을 때조차 그것이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 활동으로 이어지기 힘

들게 하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그림책들이 소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곳에 꽂혀 있었다. 소연이가 놀잇감을 탐색하러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시선을 돌려도 그림책은 소연이의 시선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은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기 어려웠다. 다음은 책보기 환경구성에 대한 소연이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이다.

우리 소연이는 평소에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도 이것 조금 만지고, 저것 또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호기심이 좀 많아서 그런가? 여기 저기 엄청 관심을 보여요.

너무 가지고 놀게 많이 나와 있나? 이것도 만졌다가 저것도 만졌다가.

그래서 책 볼 시간이 없나 봐요. 욕심이 많은 건가? (웃음)

우리 소연이 집중력이 떨어지나? 그래도 원래 이때 어린 아이들이 한 가지

오래 못하잖아요. 맞죠? (중략)

그러면 좀 정리해줄까요? 그때 우리가 인테리어 바꾼 적 있었잖아요.

그때 가구 옮기려고 싹 치워놨었잖아요. 그때 CD 뺐다 꺾다 열었다. 계속 그

것만 하고, 책도 좀 보더라고요. 다 치워서 할 게 없었잖아요. (웃음)

(2012. 11. 7 어머니와 면담)

위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도 소연이가 정리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한 가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것이 문제점인지 자연스러운 그 시기의 현상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도 소연이의 놀이 환경이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소연이에게 적합한 환경구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환경을 개선해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

연구자가 소연이의 가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당시 소연이는 약 20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있었다. 20권의 그림책들 중 2권은 형겅으로 된 것으로 돌이 되기 전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 중 한권은 모두 영어로 된 별 모양의 책이고, 다른 한권은 동물이 나오는 책이었다. 또, 책으로 되어있지만 동요와 영어 동요 악보가 담겨있고, CD가 함께 있는 것이 2권 있었다. 이 2권은 형태는 책이지만 모두 악보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악보집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글자, 숫자, 색깔, 모양 등에 관한 종이로 된 팝업북이 5권 있었다. 4권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적합할만한 것으로 한 페이지에 담긴 내용이 길고,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이었다. 이 외에 나머지 책들은 기본적으로 유아들이 흔히 보는 형태의 책으로 얇은 종이로 되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한 페이지에 담긴 내용과 문장이 짧고, 페이지 수가 적은 책은 ‘아치는 오줌싸개’, ‘괜찮아 괜찮아’, ‘사과가 쿵’, ‘기차 ㄱㄴㄷ’ 이었다. 그 중에서 모서리가 둥글고, 두께감이 있는 보드북 형태로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한 줄로 되어있는 것은 ‘기차 ㄱㄴㄷ’ 1권 이었다.

이러한 그림책들은 소연이의 어머니가 서점에서 직접 구매한 것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판매순위가 높은 것들 중에서 골라서 선물한 것이었다. 소연이 어머니는 이 책들 중에서 형겅으로 된 책은 소연이가 돌이 지나면서 따로 정리를 하여 두고 있었다. CD와 함께 있는 영어 동요 책과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들도 따로 보관하여 두고 소연이가 좀 더 성장한 후에 순차적으로 제공해줄 예정이라고 하였다. 결국 소연이가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은 약 13권으로 팝업북들과 얇은 종이로 된 기본 형

태의 그림책들, 보드북 이었다.

이들 중 소연이가 자발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한 것은 보드북 형태로 된 ‘기차기차’ 이었다. 관찰 기간 중 소연이가 그림책을 보는데 평소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 책을 보고 있을 때였다.

다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팝업북 이었다. 소연이는 열면 튀어나오는 부분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팝업북의 기본 페이지나 열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의 연결부분 모두 얇은 종이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소연이가 탐색을 시작하면 쉽게 찢어지고 망가져서 튀어나오는 부분의 내용이 사라지거나 조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즉, 소연이는 팝업북에 관심을 가지고, 오 감각을 통해서 충분히 탐색하고자 하지만 만 1세 영아아이기에 소 근육이 정교하게 발달하지 못해 조절을 하기 힘들고, 그 결과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책이 망가지다보니 다음에는 그림책을 펼칠 때 찢어진 부분을 볼 수 없게 되고, 튀어나오지 않거나 조작성이 되지 않아 흥미가 지속될 수 없었다. 또한, 이렇게 그림책이 망가지게 되어 다음에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자꾸만 소연이가 그림책을 탐색하는 것을 제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은 소연이가 팝업북에 관심을 보이고, 탐색을 하려 하는데 그림책이 쉽게 찢어지게 되어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머니 또한 소연이의 탐색을 제한하면서 흥미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이다.

소연 : (색깔에 관한 팝업북을 고른다.)

엄마 : (책장을 넘기며) **우리 이 책 볼까요?**

소연 : (책장을 한꺼번에 여러 장 넘긴 후 한 장을 앞으로 돌리며) **짜잔~**

엄마 : **아이쿠! 보라.** (보라색 네모 종이를 연다.)

짜잔~ 나비! (보라색 나비들이 튀어나온다.)

소연 : (보라색 네모 종이를 닫는다.)
 엄마 : (옆 장에 있던 노란색 네모 종이를 열며) **짜잔~ 병아리. 삐약삐약.**
 소연 : (노란색 네모 종이를 닫는다.)
 엄마 : **삐약삐약~ 삐약삐약 병아리~** ('작은 동물원' 노래를 부른다.)
 소연 : (닫았던 네모 종이를 다시 열면서 튀어 나온 병아리를 손가락으로 쿡 쿡 누른다.)
 엄마 : (병아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옹지! 병아리! 삐약삐약! 삐약삐약이!**
 소연 : (계속해서 병아리를 누른다.)
 엄마 : (노란색 종이를 닫으면서) **다시! 승!**
 (노란색 종이를 다시 열며) **다시~ 이거는 삐약삐약이.**
 소연 : (튀어나온 병아리를 계속 해서 쿡쿡 누른다.)
 (중략)
 엄마 : (소연이가 책을 덮자 책을 앞부분이 보이게 돌린다.)
 (소연이가 놀잇감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책의 가장 뒷부분을 펴며)
소연아.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짜잔~
 마지막 장에는 그동안 책장의 네모 안에 있던 것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튀어 나온다.
 소연 : **짜~~** (튀어나와져 있는 종이를 만진다. 튀어나온 종이가 구겨진다.)
 엄마 : (책장을 덮으면서) **어~ 또 찢어? 안 돼. 안 돼.**
 (팔을 쭉 뻗어 책을 앞으로 뺐다가 다시 마지막 장을 펼쳐주면서)
하나 둘 셋 짜잔~ 물고기~ (책장의 튀어나온 부분을 소연이에게 흔들어 보이는데 소연이가 손을 뻗어서 종이를 만지려 하자 다시 책장을 덮는다.)
 소연 : (마지막 장을 펼치려고 한다.)
 엄마 : (소연이가 책을 만지지 못하게 뺐다가 마지막 장을 퍼주며) **짜잔~**
 소연 : (손을 뻗어서 만지려 하자 종이가 구겨진다.)
 엄마 : (구겨진 종이를 펴면서) **이거 안 돼. 소연아. 또 찢으면 안 돼.**
 소연 : (튀어나온 물고기를 누른다.)
 엄마 : (책장을 닫으면서) **이제 더 찢으면 찢을 것도 없어.**
 (책장을 덮어서 책을 앞으로 돌린 후 책장을 펼친다.)
다시 빨강~ 파랑~
 소연 : (네모를 닫지 않고 그냥 책장을 넘기다가 닫으며 얼굴을 찡그리고) **뻑!**

엄마 : 다시?

소연 : (몸을 흔들면서 엄마 무릎에서 일어나려 한다.) (2012. 11. 5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연이는 색깔 네모를 열었을 때 튀어나오는 것에 관심을 느껴하고 그것을 탐색해보기를 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그림책이 찢어져서 망가졌던 경험 때문에 탐색을 제한하고 있었다. 결국 팝업북을 탐색해보고자 했던 소연이의 흥미가 사라지면서 다른 놀잇감으로 시선을 옮기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뜻대로 탐색할 수 없음에 그림책을 닫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나타냈다.

관찰 결과 이 팝업북은 소연이가 조금만 만지려고 해도 쉽게 구겨지고, 종이가 찢어져 버렸다. 이는 오 감각을 통해서 주변을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영아가 탐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책이다. 소 근육이 발달하지 못한 영아가 조금만 만져도 쉽게 구겨지고 망가져 영아의 탐색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좌절 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이기에 영아가 조금만 탐색을 하려해도 찢어지고, 망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소연이는 좌절감을 느끼며 흥미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소연이가 그림책을 만지는 행동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림책이 망가지게 되어 다시 그 책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연이는 그 시기의 영아들이 그렇듯이 자연스레 그림책을 탐색해보기를 시도하지만 망가지는 그림책과 어머니의 제재로 인해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는 그림책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었기에 발달에 적합한 책을 제공해주어 소연이가 충분히 그림책을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어머니 요인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소연이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소연이의 감정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채 어머니의 시각으로 그림책을 대했으며, 일방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어 소연이의 흥미를 떨어뜨렸다. 또, 그림책 읽기 중에 나타나는 소연이와 어머니 간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1)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그림책 보여주기

관찰을 시작한 며칠 동안 소연이가 자발적으로 그림책에 관심을 나타내며 그것을 탐색하고 보려 하는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그림책 보기는 어머니가 소연이에게 그림책을 함께 보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나타내면 그림책 보기로 이어지곤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관심을 갖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주 잠깐이어서 제대로 된 그림책 보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그림책 보기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였다. 소연이가 그림책이 아닌 다른 놀잇감이나 사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을 때였거나 어머니가 소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그림책을 보이며 ‘이거 좀 봐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방법만을 사용했을 때였다. 어머니는 그림책에 관심을 나타낼만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거나 소연이가 놀잇감이나 다른 사물에 흥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므로 탐색해볼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일단 소연이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소연이를 앉혀서 함께 그림책을 보려고 했다. 그 결과 소연이는 그림책을 보는 것에 흥미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심지어 짜증을 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한 사례이다.

소연 : (아직 뜯지 않은 동요 악보 책과 CD세트를 꺼내어 잠시 살펴보다 엄마에게 다가가 내민다.)

엄마 : (다른 책을 펼쳐서 보여주며) 우리 ‘만만한 빼악이!’ 있지? 책 중에. 근데 애는 ‘만만한 짹짹이’. 새!

소연 : (동요 악보 세트를 보다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엄마가 들고 있는 책을 만지려고 한다.)

엄마 : (들고 있던 책의 책장을 넘기며) 어? 이걸 뭐야? 하늘을 나는 연.

소연 : (한 손으로 책장을 한꺼번에 여러 장 세계 넘긴다.)

엄마 : 어? 이걸 뭐예요? 이걸 꿀벌! 달콤한 꿀을 찾으러 뽁뽁~

소연 : (나머지 책장을 한꺼번에 넘겨서 책을 닫는다.)

엄마 : (책을 다시 열어서 보여주며) 소연아! 소방차~ 애앵~ 애앵~

소연 : (책을 다시 닫아서 옆으로 밀친다.) 예!

엄마 : (책을 다시 끌어와서) 소연아! 소방차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알아? 애앵~ 애앵~

소연 : (책을 다시 닫아서 밀려고 한다.)

엄마 : (책을 살짝 옆으로 비키며) 소방차 불이 났어요!

소연 : (다시 책장을 닫으려고 한다.)

엄마 : (닫히려는 책장을 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

소연 : (결국 엄마 손가락이 책에 있는데 책장을 덮어서 꺾 누른다.)

엄마 : (손이 책속에 끼어 있다.) 아아~ (책속에 낀 손을 뺀다.)

소연 : (책을 들어서 옆으로 던진다.)

엄마 : (가만히 있다가 책을 다시 주워와 책을 편다.) 이거 한번 봐봐.

소연 : (책을 다시 덮어서 옆으로 던진다.) 아아!

엄마 : 왜? 이거 보기 싫어? (책을 다시 집어와 펴며) 왜 자꾸 집어던져?

소연 : (엄마가 펴놓은 채로 책을 옆으로 던진다.)

엄마 : (책을 다시 집어온다.) 왜에~?

소연 : (책을 다시 그대로 집어서 옆으로 던진다.)

엄마 : (소연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왜? 보기 싫어?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책 보라고 그랬어?

소연 : (엄마를 바라보다가 일어나서 뒤를 돌아 연구자에게 다가온다.)

(2012. 11. 21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소연이는 동요 악보 책과 CD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색해보고자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소연이의 관심에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림책 보기를 시작해버린다. 그래서 소연이는 한 손에 자신이 흥미를 느낀 것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어머니가 이야기 하는 그림책을 한꺼번에 넘겨서 책장을 닫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소연이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림책 보기를 하려 했다. 그 결과 소연이는 그림책을 옆으로 던지며 짜증을 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소연이의 감정에 공감해주기 보다는 던져진 그림책을 집어서 보여주며 계속 책 보기를 진행하였다. 결국 소연이는 어머니의 손이 끼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책을 눌러서 덮어버린 후 던지며 소리 내어 짜증을 부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었다. 어머니는 소연이가 그림책을 보고 싶지 않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림책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소연이가 여러 번 짜증을 표출하자 그때야 비로소 기분을 헤아려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소연이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그림책 보기 상황에 계속 짜증을 내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된다.

다음은 어머니가 흥미가 생긴 놀잇감을 만지러 가는 소연이를 억지로 붙잡고 그림책을 보여주어 결국 소연이가 짜증을 내고 가버리는 경우에 대한 또 다른 사례이다.

소연 : (놀이 집에서 나와 소꿉놀이 장난감이 있는 곳으로 가려다 엄마와 눈

이 마주친다.)

엄마 : ('뭐하니?' 책을 들고 소연이에게 보여주며) 소연아! 뭐하니~?

소연 : (엄마에게 다가가 앉아 있는 엄마 옆에 서서 바라본다.)

엄마 : (책장을 넘기며) 짜잔~ 어? 원숭이야 뭐하니?

소연 : (몸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

엄마 : (움직이려는 소연이의 팔을 잡으며) 소연아 이리 와봐.

소연 : (앞으로 걸어가려 하지만 엄마에게 팔이 잡혀서 갈 수 없다.)

엄마 : (한 손으로는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소연이의 팔을 잡고 엄마 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며) 원숭이야 뭐하니?

소연 : (움직이려 하다가 움직이지 못하자 몸을 돌려 책의 원숭이 그림을 손으로 탁 치며) 아!

엄마 : (소연이를 잡은 손을 놓는다.)

소연 : (몸을 움직여서 놀잇감 있는 곳으로 간다.) (2012. 11. 19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는 놀잇감이 있는 곳으로 가려하는 소연이를 붙잡고 그림책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처음에 소연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림책을 봤지만 이내 자신이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려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그림책을 보게 하려고 소연이의 몸을 어머니 쪽으로 끌어당기고 결국 소연이가 짜증을 내고 가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소연이가 다른 것에 흥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거나 그림책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켜주지 않고 그림책을 읽어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욕을 앞세우고 있다. 그 결과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이 생기고, 함께 그림책을 보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게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소연이가 그림책에 흥미를 갖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로 이어지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소연이에게 그림책 보기는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에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어야겠다는 의욕을 앞세워 소연이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동기유발 없이 일방적으로 그림책을 보여주려 하는 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영아가 갖는 그림책의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

성인들은 책을 그 속에 담긴 글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아들에게 있어서 책은 글을 읽는 것 이라는 본래의 의미 뿐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림책도 그 속에 담긴 글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속에 담긴 글을 읽고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림책 보기는 한 장 씩 넘겨가면서 글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연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려 하였다. 다음은 위의 내용이 담긴 사례이다.

소연 : (장난감을 내려놓고 다른 장난감 쪽으로 가려한다.)

엄마 : (소연이를 잡으며) 소연아. 우리 책 보자. 이리와 봐. 엄마랑 책 보자.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집어 든다.)

기차가 나무 옆을 지나 다리를 건너 숲 속을 지나 자동차 사이를 빠져나와.

소연 : (책장을 넘기는데 한 번에 여러 장이 넘어간다.)

엄마 : (다시 책을 앞으로 돌려서 읽고, 소연이가 책장을 넘기려고 손으로 책장을 잡자 자연스럽게 막으며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커다랗고 킁킁한 터널을 통과해서.

소연 : (책장을 넘기려고 손을 뻗는데, 책장이 한꺼번에 넘겨져 덮어지려 한다.)

엄마 : (덮어지려는 책을 다시 잡아서 손으로 한 장을 넘기며) **마지막!**

넓은 풀밭을 가로지르면. (책장 넘기고) **해는 벌써 지고 있어요.**

소연 : (다시 책장을 넘기려고 손을 뻗는다.)

엄마 : (소연이 손에 닿지 않게 책을 들어서 닫은 후 앞으로 돌려서) **다시!**

기다란 기차가

소연 : (손을 뻗으며) **음음~~** (책장을 넘기려 한다.)

엄마 : (소연이가 책을 만지지 못하게 앞으로 팔을 뻗으며 내용을 읽어준다.)

소연 : (몸을 흔들며 일어나려 한다.) **어! 어 음~~**

엄마 : **어~** (책장을 넘긴다.)

(2012. 11. 7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는 처음에는 소연이가 책장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책장이 한 번에 여러 장이 넘어가자 소연이가 책장을 넘기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가 책장을 한 장씩 넘겨가며 내용을 읽어주고 있다. 소연이는 자신이 책장을 넘기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 어머니는 소연이가 그림책을 만지지 못하게 팔을 앞으로 뻗으며 책장을 한 장씩 넘겨서 내용을 읽어주고 있다.

소연이는 그림책의 내용 보다는 자신이 책장을 넘기는 것에 더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각에서 그림책은 그 안에 적힌 글을 읽어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림책 보기라는 것은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어머니는 소연이가 그림책의 내용보다는 책장 넘기기에 관심을 나타내며 마음대로 책장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행동에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시각에서는 소연이를 위해 그림책의 내용을 전부 잘 읽어주어 그림책 보기를 잘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연이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 소연이는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림책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이 그림책에 있어서 가장 흥미를 가지는 책장 넘기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짜증이 났다. 결국 그림책에 흥미를 잃고, 그림책 보기를 거부하며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책장 넘기기에 대한 관심이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어머니와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영아에게 있어서 그림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시각을 개선해나가야 했다.

(3) 상호작용 방법의 한계

어머니는 소연이가 그림책을 좋아하고,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소연이와 그림책 보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소연이가 놀이를 하는 동안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하여 보려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림책을 보여주기 위해 표지를 보이며 ‘소연아! 이거 좀 봐 봐.’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방법으로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소연이가 어머니 곁으로 왔을 때 무릎에 앉혀서 그림책을 꺼내어 읽어주었다. 어머니는 이때 주로 그림책 속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거나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림의 이름이나 생김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었다. 그림책에는 어머니가 읽어줄 내용이 많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은 후 책장을 넘기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 다음은 어머니가 소연이에게 적절하지 못한 상호작용을 하며 그림책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엄마 :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두드리며) 소연아. **엄마랑 같이 책 보자.**

소연 :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가 책장을 넘기려고 하자 엄마 손을 밀면서 자신이 책장을 넘기려고 한다.)

엄마 : **어? 소연이가 할 거야?**

소연 : (엄마의 도움을 받아 한 장을 넘긴다.)

엄마 : **개미는 작아.** (그림 속 개미를 가리키며) **개미가 요만하다 소연아. 그
치?** (한 장을 넘기며) **어? 괜찮아 영차 영차. 나는 힘이 세.**

소연 : (책장을 넘기려 하는데 얇아서 한 번에 끝까지 넘긴다.)

엄마 : (다음 장에 손가락을 끼우고 있었기에 손을 움직여서 다시 책을 펴고
내용을 읽는다.)

소연 : (다시 손을 뺀어 책장을 만지고 한 번에 넘겨진다.)

엄마 : (소연이가 책장을 넘기지 못하게 손으로 누르면서 내용을 읽는다.)
뱀은 다리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소연 : (계속 책장의 한 쪽 끝을 만지며 넘기려 한다.)

엄마 : (한 손으로 책장이 넘어가지 않게 누르며 한 장씩 넘기고 내용을 읽는
다.)

소연 : **빠액~** (소리를 지르며 책장을 넘긴다.)

엄마 : **그래요.** (책을 살짝 앞쪽으로 빼서 한 장을 넘긴다.) **나는 높이 달아.
나는 빨리 달려.**

소연 : (앞으로 책장을 넘기려 하지만 엄마가 손으로 잡고 있어 완전히 넘어
가지 않고, 넘어가는 만큼만 넘기려해 책장이 접혀진다.)

엄마 : (계속 책의 내용을 읽는다.)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힘이 세.**

소연 : (힘을 주어서 두 손을 이용하여 책장을 가장 뒷부분으로 돌린다.)

엄마 : (소연이가 몸을 비틀자 책을 앞쪽으로 빼면서 두 팔과 몸을 이용하여
소연이가 바로 앉을 수 있게 돌린 후 계속 동화를 읽는다.)

소연 :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려고 한다.)

엄마 : **기린도 있고, 뱀도 있고, 개미도 있고.**

소연 :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다 멈추고 다시 책장을 넘기려고 잡는다.)

엄마 :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다 소연이가 책을 잡자 살짝 팔을 앞으로
내밀며 책을 앞으로 돌린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 가봅시다.**

소연 : (몸을 일으키려 하며) 으으~ (2012. 11. 5 참여관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는 소연이가 그림책에 시선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림책 표지를 두드리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책
장을 넘기고 싶어 하는 소연이를 제재하며 그림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나

갔고, 읽는 중간에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이야기 해주었다. 소연이는 이런 그림책 보기에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고, 짜증을 내고, 다른 것을 하러 가고자 했다. 소연이는 어머니가 그대로 읽어주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재미를 느끼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물로서의 그림책이나 그 속에 나오는 그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색할 기회도 가질 수 없었다. 어머니는 소연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상호작용 방법의 한계로 인해 그림책에 대한 소연이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개선이 필요했다.

2. 그림책 보기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부모지원 실행과정

1) 그림책 관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

소연이가 그림책을 접하는 가정의 환경이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책 보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인 소연이의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탐색을 하려해도 그림책이 쉽게 찢어지거나 망가져서 다음에 다시 그 책을 탐색할 수 없게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소연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림책을 만지지 못하게 소연이의 손을 잡고 있거나 행동을 부정적인 언어로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연이가 오 감각을 이용하여 충분히 탐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그림책에 친숙함을 느끼며, 흥미를 갖

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발달에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구성

환경구성 재정비를 위해서 일단 소연이의 평소 생활에 대해 어머니와 이야기 나눈 후 모두 꺼내어져 있던 놀잇감들을 종류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책꽂이의 2번째 칸이 소연이의 눈높이와 맞았기 때문에 소연이의 그림책들을 2번째 칸에 옮겨주었다. 이는 평소에 소연이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 못지않게 CD장에서 CD빼기를 놀이로 즐겨하는데 기인한 것이었다. 소연이는 거실 한 쪽에 있는 CD장에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칸에 있는 CD를 빼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CD 케이스 겉면이나 안쪽을 살펴보고, CD를 빼는 것을 매우 즐겨하였다. 연구자가 관찰하는 동안에도 소연이의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소연이가 CD뿐만이 아니라 일어섰을 때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있는 것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거나 꺼내어 놓고 살펴보는 것을 즐긴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이에 우선 소연이의 눈에 띄는 곳에 그림책을 배치하면 이 또한 평소에 즐기는 것처럼 꺼내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살펴보면서 친숙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환경 구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연이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면서 융통성 있게 수정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소연이의 어머니는 연구자가 방문하지 않는 날에 나타나는 소연이의 특징적인 행동을 기록해두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이러한 환경구성의 재정비는 영아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경력교사,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조언

을 얻었다. 다음은 환경구성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야기 한 내용이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우리 소연이가 평소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거실을 막 돌아다녀요.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CD장에 있는 CD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다 빼요. 자기가 뺄 수 있는 칸에 있는 건 다 빼요. 그러다가 또 막 다녀요.

그러다 저기 옆에 선반에 가요. 그래서 저기 있는 물건을 또 다 빼요.

그리고 혼자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봐요.

(책꽂이를 가리키며) 저기에 잡지랑 있죠. 그것들도 빼요. 그리고 또 보는 것처럼 하다가 또 다녀요.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또 다 정리해야 해요. 정리하면 조금 있다 또 해요. 그게 매일 하는 일 중 하나예요.

(소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책들을 꽂아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그럼 이제 또 우리 딸 저 그림책들 열심히 빼겠다. (웃음) 그러면서라도 책 한번이라도 더 보지 않을까요? 제가 잘 관찰할게요.

(2012. 11. 19 어머니와의 면담)

위의 내용에서처럼 1차적인 환경 재정비에 있어서 소연이가 평소 즐겨하는 행동을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 실행이 시작됨에 있어서 어머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이후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소연이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책꽂이에 그림책들이 꽂히자 CD를 빼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책을 꺼내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놀이처럼 즐겨했다. 이러한 놀이를 할 때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를 내고 즐거워했다. 점점 그림책 떨어뜨리기를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2번째 칸에서 그림책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다 보니 소연이의 발에

그림책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놀이로는 즐겁게 인식하지만 그림책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 버려 그림책을 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에 연구자와 소연이의 어머니는 1차적으로 환경을 재정비한 후에 나타난 소연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반성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발견된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그리고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소연이의 성향과 놀이 행동에 좀 더 적절한 방향으로 환경을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1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한 후 나타난 문제를 인식하고, 2차적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행동 변화에 대한 사례이다.

소연 : (놀잇감을 가지고 놀다 책장으로 걸어간다. 2번째 칸에 꽂혀있는 책을 손으로 누르다가 책들을 밖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린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1권을 떨어뜨리고, 얇은 책은 손바닥으로 2권을 같이 떨어뜨리기도 한다.)

엄마 : 소연아. 또 다 꺼내 놓을거야? 엄마가 다 꽂아놓으면 다 빼놓고.

소연 : (옆으로 옮겨가며 계속 남아있는 책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엄마 : 소연아! 발 조심. 너 그러다가 책 발에 떨어지면.

소연 : (남아있는 모든 책을 떨어뜨린 후 무릎을 구부려 엉거주춤 앉아서 책을 한두 권 만진 후 다시 놀잇감이 있는 쪽으로 간다.)

엄마 : 또 다 이렇게 꺼내놨어! (연구자를 보며) 소연이는 맨날 이렇게 해놓는다. 재미있다. 근데 이러다가 발 위에 떨어질까 걱정이예요.
(소연이가 꺼내어 놓은 책을 책장에 꽂아놓고, 그중 몇 권을 TV장 위쪽에 표지가 보이게 펼쳐놓는다.)

(중략)

소연 : (인형을 가지고 돌아다니다 TV장 위 쪽을 본다. 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책을 집어서 엄마에게 내민다.)

엄마 : 우리 이 책 같이 볼까? 그래. 엄마랑 같이 보자.

(소연이를 무릎에 앉힌 후 책장을 편다.)

소연 : (엄마가 책장을 넘기자 손을 내밀어 자신이 책장을 넘기려고 한다.)

엄마 : **아빠는 달리기 일등!**

소연 : (책장을 넘기며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 아빠!**

(중략)

소연 : (점토 찌기 틀을 모두 꺼내었다가 다시 통에 집어넣는다.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통을 열어서 찌기 틀을 꺼낸다. 그러다가 행동을 멈추고 일어서 거실을 한 바퀴 돌다가 TV장 앞에 멈춘다.

TV장 위에 펼쳐놓았던 책들을 바라보다가 책 한권을 집어 들고 매트
에 앉는다.)

엄마 : **우리 소연이 책 볼 거야? 그래. 무슨 책 볼 거예요?**

소연 : (책을 들어서 엄마에게 내밀며) **어! 어!**

(중략)

소연 : (다 본 책을 매트에 놓아둔 후 다시 TV장으로 가서 다른 책을 고른 후
엄마에게 내민다.) (2012. 11. 26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소연이는 눈높이에 맞는 곳에 그림책의 표지가 보이게 펼쳐놓자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림책을 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관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TV장 위쪽이나 매트 위의 한 쪽에 그림책 몇 권을 표지가 보이게 펼쳐놓자 놀이를 하다가도 그쪽으로 가서 그림책을 고르고 한 권을 충분히 보고 내려놓은 후 또 다른 그림책을 골라서 보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림책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또한 하나의 놀이로 즐거하였다. 이에 처음에는 소연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림책들을 제일 아래 칸으로 옮겨 주는 방안도 생각하였으나 소연이는 그림책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떨어뜨렸을 때 발을 다치지 않을만한 무겁지 않은 그림책들 위주로 꽂아준 후 소연이가 좋아하는 몇 가지 그림책들은 표지가 보이게 놓아두는 것으로 환경을 구성하였다. 소연이의 집이 곧 이사를 할 계획이기에 이사를

간 후에는 표지가 보이게 그림책을 꽂을 수 있는 책꽂이도 마련하여 이러한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구성 과정에서 연구자는 지도교수에게 그동안의 실행내용과 그에 따른 소연이의 변화를 이야기 한 후 새로운 환경 구성에 대해 자문을 했다. 다음의 사례는 새로운 환경 구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환경을 구성하게 된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나눈 면담의 내용이다.

엄마: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소연이가 잘 볼 수 있게 책장에 소연이 책을 꽂아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자주 와요. 그런데 매일 하는 일이 소연이는 와서 책을 모두 빼놔요. 아까 봤죠? 그렇게 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나는 다시 그 책을 꽂아놔요. 그러면 다시 와서 책을 빼요. 이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예요. 나는 다 괜찮은데 혹시 책 떨어뜨리다가 책이 소연이 발 위에 떨어질까봐.

(그림책을 아래 칸으로 옮겨주는 것은 어떨까?)

엄마 : 안 그래도 그래서 내가 제일 아래쪽 칸에 꽂아봤거든요.
근데 또 제일 아래쪽 칸에 책이 있으면 책을 아예 잘 만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눈높이에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책을 떨어뜨리고 나서 떨어진 책을 골라서 보기도 하는가?)

엄마 : 아뇨. 책을 떨어뜨리고 몇 장 넘기기도 하는데. 그게 다예요.
아까도 봤듯이 떨어뜨리고 책을 골라서 잘 읽지는 않아요.
그냥 떨어뜨려요.

(책표지가 보이게 배치하니 관심을 나타내는 것 같다.)

엄마 : 맞아요! 저렇게 놓으니깐 책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책 표지가 보이게 꽂는 책장이 있기는 한데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럼 그냥 아까처럼 펼쳐놓는 게 좋겠죠?
우리 이사 갈 때 그런 책꽂이를 사야 할까 봐요. (웃음)
내가 가끔 놀이할 때 책도 좀 보라고 펼쳐놓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평소보다 자기가 더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책 보라고 펼쳐보셨더니 책을 좀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점점 책을 잘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책을 평소보다 많이 봤어요.(웃음)

(2012. 11. 28. 어머니 면담)

위의 사례를 통하여 새롭게 구선된 환경구성이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며 즐거운 놀이 및 그림책 보기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아 발달에 적합한 그림책 제시

발달에 적합한 그림책을 제공해주기 위해 우선 소연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림책들을 내용이나 글자 수, 일러스트, 페이지 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는 새로운 책을 제공함에 있어서 내용이나 형식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그 후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에 관한 참고문헌과 영아의 그림책 읽기에 관한 선행연구, 월령별 인기 및 추천 도서, 영아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교사의 조언 등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그림책들 중 책장을 넘기는데 큰 흥미를 느껴하는 소연이가 책장 넘기기를 스스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보드북 형태로 된 ‘옷을 입어요’를 우선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는 소연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들은 대부분 영아들이 스스로 넘기기에는 어려운 얇은 종지로 된 일반적인 책들이어서 책장이 한꺼번에 넘어가 2번 만에 그림책이 끝나게 되거나 책장을 넘기기 어려워서 찢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소연이가 어머니와 즐겨하는 놀이 중 한 가지가 까꿍 놀이였다. 이에 영아기에 적합한 도서

이기도 한 까꿍 놀이 그림책으로 ‘열 두 띠 동물 까꿍 놀이’ 와 ‘뭉하니’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몇 권의 그림책을 선정하고 난 후 영아가 발달에 적합한 책을 다양하게 여러 권 구비하고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와 비록 한 두 권의 책이지만 그것이 영아에게 적합한 것이고, 흥미를 느껴하는 것이라면 책의 권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몇 가지 종류의 그림책을 소연이에게 제공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한 끝에 선정된 그림책들 중 소연이가 평소 관심을 나타내고, 흥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까꿍 놀이 그림책, 보드북,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소리 나는 동물 그림책을 제공해주었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책들을 제공한 후 나타난 소연이의 행동에 관한 사례이다.

소연 : (책을 놓아두었던 곳에 가서 ‘옷을 입어요.’ 책을 들고 엄마에게 온 후 내밀며) 어! 어!

엄마 : 이거 볼까? (책을 편다.)

소연 : (책을 넘겼다다 다시 앞으로 돌려서 양말과 신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다~ (다시 책장을 넘기며) 째~ 째~ (장갑 그림을 보고) 어~ 오!

엄마 : 소연이가 다 입는 거지? 우리 소연이 예쁜 장갑. 원피스.

소연 : (책을 모두 넘긴 후 다시 책을 돌려서 책장을 넘긴다.) (모두 넘어가면 엄마에게 내밀었다가 책을 잡아주면 다시 책장을 넘기며) 오! 오! (책장을 모두 넘긴 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책장을 넘긴다.) 째~ 째~ 짜기~ (책장 넘기기를 6번 반복한 후 책장을 모두 넘기자 두 팔을 들어 만세한다.)

엄마 : (박수를 치며) 잘 봤네! 다 읽었다.

소연 : (다시 손을 뺀어서 책을 잡은 후 책장 넘기기를 반복하고, 만세한다. 8번째 책장을 넘기다가 앞으로 돌려서 양말 그림을 보고 손으로 만지

다가 다시 책장을 넘긴다. 책장을 모두 넘긴 후 만세를 한다.)

엄마 : 소연이 책 다 읽었어요? 우와~ 잘했네.

소연 : (다시 앉아서 책이 펼쳐져 있는 곳의 책들을 보다가) 쭈~ 쭈꾸까?

(다시 '옷을 입어요.' 책을 집어 들고 엄마에게 내민다.)

엄마 : 또 이거? 그래. 우리 같이 보자. (책을 잡고 펼친다.)

소연 : (책장을 넘긴다.) 짜안~ (책장을 다 넘기자 만세를 한다.)

엄마 : 만세! 다 봤다. (책을 내려놓는다.)

소연 : (두 팔을 내리고 몸을 살짝 흔들며) 어! 어! 어!

엄마 : 왜~? 이거~? 자. (다시 책을 소연이 앞으로 가져간다.)

소연 : (좀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책장을 넘기는 것을 2번 반복한 후 책을 두 손으로 잡은 후 들고 흔들며) 야~~

(엄마가 책장을 한 장 넘겨주자 다시 엄마 손을 옆으로 밀고 자신이 책장을 넘긴다.) 오~ 오~

(책장을 모두 넘겨 책이 닫히면 엄마를 바라보며) 어!

엄마 : (책장을 잘 넘길 수 있게 책을 잡아준다.)

소연 : (책장을 넘기는 것을 3번 반복하고, 두 팔을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로 든 후 흔들며) 짜!짜!짜~ (2012. 11. 21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소연이가 보는 그림책은 옷, 신발, 양말 등 아이가 입는 것들에 관한 그림이 담긴 짧은 내용의 것이다. 이 책은 책장이 두꺼운 EVA 같은 재질로 되어 넘기기에 좋은 보드북 형태이다. 이 책을 제공해주었더니 소연이는 한 번에 10번 이상 책장을 넘기고, 보면서 매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영아가 흥미 있어 하는 것으로 접근하여 그것을 충분히 탐색하고, 활동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 해서 흥미를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나아가 그림책에 대한 친밀감과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소연이의 행동은 그림책을 스스로 탐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제한하던 어머니의 행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하였다. 소연이가 충분히 그림책을 탐색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장 넘기기를 반복

하여도 그림책이 망가지거나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제한을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몇 가지의 그림책을 제공해준 후 소연이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림책보다 제공해준 그림책들을 선택하여 보는 빈도가 높아졌다. 예전에 비해 어머니가 그림책을 함께 보자고 하였을 때 그림책에 집중하여 책장을 넘기거나 그림을 응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또, 책장이 잘 넘겨지는 보드북은 손에 들고 다니면서 놀이를 하는 중간 중간 책장을 넘겨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관찰결과 소연이의 이러한 관심이 모든 그림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연이는 새롭게 제공된 그림책들 중에서 한 두 권의 그림책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나머지 그림책들은 어머니가 보여주려고 해도 잘 보지 않고, 관심이 집중된 한 두 권의 그림책만을 보려하는 편중된 모습이 나타났다.

관찰한 결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소연이는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들이 나온 그림책에는 관심을 나타내지만 경험을 하지 못한 것들이나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림책에 있어서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심지어 소연이가 새롭게 제공된 그림책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던 보드북과 똑같은 형식이지만 내용만 다른 것으로 소연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담겨있는 보드북은 전혀 흥미로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소연이는 여전히 ‘옷을 입어요.’ 보드북을 넘겨보는 것을 반복하며 좋아하면서도 같은 형식에 내용만 새로운 보드북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싫어하는 모습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책을 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까꿍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선정한 까꿍 놀이 그림책에도 큰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까꿍 놀이를 웃으면서

하다가도 쥐나 호랑이, 뱀이 나오는 장면에서 무서워하며 몸을 뒤로 빼는 행동이 나타났고, 몇 번 보더니 나중에는 잘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 소리 나는 동물 그림책도 마찬가지였다. 이 책은 소연이가 놀잇감들 중에서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점과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림책이 없는 점을 반영하여 영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농장 동물들이 주인공인 것으로 선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연이는 까꿍 놀이 그림책이나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소리 나는 동물 그림책에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고, 어머니가 보여주려고 해도 다른 그림책을 집어 드는 행동을 나타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소연이의 현재 발달에 적합하고, 흥미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림책들을 선별하여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그림책에 대해 생기게 된 소연이의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해 1차적으로 선정된 그림책들 중에서도 소연이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내용과 형식의 그림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연이와 같은 어린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밥 먹기, 옷 입기, 잠자기 등과 같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보드북 형태로 된 책들을 제공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2차적으로 새롭게 제공된 그림책들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양치질에 관한 그림이 있는 그림책에 흥미를 나타내며 반복해서 그림책을 보고 내용에 몰입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소연 : ('쿨쿨쿨 잠자요.'라는 책을 골라서 집어든 후 어머니에게 내밀며) 어!

엄마 : 이 책도 볼 거야? '쿨쿨쿨 잠자요.' (책장을 넘긴다.)

소연 : (책장을 넘긴다.)

엄마 : 이를 닦아요. 치카치카치카.

소연 : (그림을 계속 바라본다.)

엄마 : 치카하고 있네. (그림을 가리키며) 곰돌이랑 소연이랑 치카치카.
 소연 : (계속 그림을 바라보다가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아~~
 엄마 : 그렇지. 그렇게 이 닦는 거.
 소연 : (입에 넣은 손가락으로 이를 누르며) 아~~~~
 엄마 : 치카치카. 여기 이 닦고 있지.
 소연 : (입에 넣었던 손가락을 빼고 그림을 보다가 다시 입을 벌리고 손가락
 을 넣으며) 아~~
 (입에 넣은 손가락을 돌리면서 움직이며 이를 누르고) 아~~
 엄마 : 그렇지. 소연이 치카치카 하는 거지. 아~ 이~ 하는 거지.
 소연 :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손가락을 흔든다.)

(중략)

소연 : (양치질 하는 장면이 나오자 책장 넘기는 것을 멈춘 후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한 동안 바라본다.)
 엄마 : 치카치카 하는 거지.
 소연 : (그림 속에 여자 아이 옆에서 곰돌이가 양치하고 있는 장면을 손가락
 으로 가리키며 문지른다.)
 엄마 : 곰돌이도 치카치카 하네. 양치하고 있는 거지.
 소연 : (몸을 숙여서 얼굴을 그림에 가까이 댄 후 그림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엄마 얼굴을 보고 손가락을 입에 넣은 후 흔들며) 아~ 아~~
 엄마 : (엄마도 이 닦는 흉내를 내며) 아~~ 이빨 닦자. 아~~~~
 소연 : (엄마를 바라보다 몸을 일으켜 엄마의 입속에 손가락을 대며) 아~
 엄마 : 엄마도 닦아주는 거야? 엄마도 닦아줘.
 소연 : (엄마 입에 손가락을 대고 흔들며) 아~~~~ 아짜~~~~

(2012. 11. 28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면 소연이는 자신과 같은 어린 여자 아이가 자신이 경험
 해보았고, 평소에 좋아하는 양치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자 책장을 넘기다가
 다시 그 장면을 찾아서 한동안 바라보다가 그것을 흉내내어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소연이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이후에도
 이 그림책을 선택하고, 자신과 어머니의 이를 닦아주는 흉내를 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이를 닦는 행동이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것으로 자신에게 매우 익숙하고, 평소에 소연이가 이 닦는 것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그림책은 소연이가 직접 책장을 넘기기에 용이한 보드북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열두 띠 동물 까꿍 놀이’는 평소에 좋아하는 까꿍 놀이에 관한 것인데다 소연이가 좋아하는 책장 넘기기를 즐길 수 있는 보드북의 형태로 되어 있음에도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었다. 이와 같이 소연이가 익숙한 것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림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은 다음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연 : (인형을 가지고 놀다 그림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집어서 엄마에게 내민다.)

엄마 : **우리 이 책 같이 볼까? 그래. 엄마랑 같이 보자.**

(소연이를 무릎에 앉힌 후 책장을 편다.)

소연 : (엄마가 책장을 넘기자 손을 내밀어 자신이 책장을 넘기려고 한다.)

엄마 : (소연이가 넘겨서 나오는 장의 내용을 간단히 읽어준다.)

아빠는 달리기도 일등!

소연 : (책장을 넘기며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 아빠!**

엄마 : **아이고~ 아빠는 힘도 세요.**

소연 : (역도를 하고 있는 아빠 그림을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웃으며)

아빠! 히히힃~ 이히~

(책장을 스스로 넘기며 넘기는 곳마다 나오는 그림을 가리키며)

아빠 (제일 뒷장 까지 모두 넘긴 후 두 팔을 들어서 만세를 한다.)

엄마 : **짠~~ 다 읽었다. 벌써!**

소연 : (만세를 하다 손을 내리고 책 뒷면에 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아빠!**

(책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책장을 넘기며 그림을 보며) **아빠!**

(다시 책을 앞으로 돌려 책장 넘기기를 반복하다 아빠 그림이 보이는 곳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

(책의 뒷부분 까지 모두 넘긴 후 다시 두 팔 들어 만세를 한다.)

엄마 : (책이 모두 끝난 후 엄지손가락을 들며) **우와~ 우리 아빠 최고!**

소연 : (만세 하던 손을 내리고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만 편 채 옆으로 해서 손을 흔들며) **아빠!** (2012. 11. 28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소연이가 보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는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없는 일반적인 종이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소연이는 이 그림책을 반복해서 5회 정도를 선택하여 보았다. 이는 책장을 넘기는 것과 함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림 속에 나오는 아빠를 가리키며 ‘아빠’라고 하기도 하고, 그림을 보고 웃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익숙한 대상인 ‘아빠’가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소연이의 그림책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연이에게 익숙한 내용이 담겨있고, 좋아하는 그림책들 위주로 제시해주고, 어머니와 함께 보도록 하면서 흥미를 지속시키도록 하였다. 동시에 동물에 관한 그림책과 같이 익숙하지 않아 선불리 다가가지 못했던 그림책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조건 여러 권의 다양한 그림책을 갖추기 위해 그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책,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종류의 새로운 그림책, 누군가 좋다고 이야기 하는 그림책들을 여러 권 구입하기보다 아이가 정말 흥미 있어 하는 한 두 권의 그림책으로 의미 있게 다가가 그것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겠다.

2) 부모지원을 위한 실행

소연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는 어머니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함께 보내고 있기에 소연이에게 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 또한 어머니였다. 특히

소연이는 글을 읽을 수 없어 그림책을 보는데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아에게 그림책 보기에 있어서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 어머니의 태도나 상호작용 등은 소연이의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결정짓는데 절대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연이의 부모는 소연이가 그림책을 좋아하고,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관찰결과 소연이와 주로 그림책을 함께보는 어머니는 그림책 보기를 방해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영아와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 상황을 위한 성인의 태도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상호작용을 지원하였다. 실행방안은 어머니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머니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예라는 고정적인 틀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연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며 변화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의 문제점 인식

관찰 초기 여러 가지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한 것 중 어머니와 소연이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선별하였다. 연구자는 이때 단순히 그림책을 탐색해보는 짧은 상황이 담긴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소연이를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어머니가 소연이를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전반적인 상황이 담겨있어서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쉽게 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잘 드러나 스스로 자신이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어떠한지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보는 데 소연이가 스스로 책장을 넘기고 싶어 하자 처음 한 두 번은 허용을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책장을 넘겨버리게 되자 다시 넘어갔던 부분으로 책장을 돌리고 소연이가 넘겨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손가락을 껴놓고 내용을 모두 순서대로 읽어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소연이가 책장을 넘기려 하자 팔을 앞으로 길게 뻗거나 몸을 돌려 소연이가 그림책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면서 내용을 모두 순서대로 읽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소연이는 그림책의 내용이나 그림에 관심을 나타내기 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책장을 넘겨보려 하고 있었다. 계속 그림책을 만지지 못하게 하자 결국 고개를 돌리고, 일어나버렸다. 연구자는 어머니와 이러한 영상을 함께 본 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음은 영상을 보고 난 후 어머니와 나눈 대화이다.

저는 제가 앞에 앉히고 읽어주니깐 저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찍어서 보니깐 좀 알겠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음... 뭐랄까.... 소연이랑 저랑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소연이랑 저랑 따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너무 제 생각대로만 책을 읽어주고 있네요.

저는 좀 바르게 앉아서 읽어주려고 하거든요. 소연이는 매우 활동적인 아이라 산만해질까봐. (중략) 내가 너무 방해했네. (2012. 11. 26 어머니 면담)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가 이야기 했듯이 어머니는 자신이 소연이에게 어떻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림책을 보여주는 동안 소연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나타내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그림책을 보여주고자 하였지만 소연이가 그림책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지 그 원인으로 어머니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는 사실에 안주해왔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 소연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모습을 보니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머니의 일방적인 그림책 보여주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소연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줄 때의 모습에 대해 되짚어서 생각해보며 소연이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어머니의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해 그 시기 영아들의 발달과 영아들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림책에 대한 의미가 다름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그동안 소연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모두 그림책에 관심이 없고, 싫어해서만 그렸던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영아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책을 탐색하는 과정이었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단지 글을 읽는 것으로서의 책이 아니라 소연이에게 그림책은 책장을 넘기는 것의 재미를 느끼거나 놀이의 도구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러한 이야기의 과정을 거친 후 소연이를 이해하기 시작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다.

제가 소연이가 책을 마음대로 알아보고 있는 건데 방해했네요.

소연이에게 책은 그냥 놀잇감이기도 한건 데.

(앉아서 ‘기차 ㄱㄴㄷ’ 책을 열심히 넘기고 있는 소연이를 바라보며)

넘기는 걸 좋아하죠? 저 책이 잘 넘겨지잖아요.

그래서 저 책을 좋아했구나.

나는 또 천재난줄 알았지. (소리 내어 웃음) (2012. 11. 26 어머니 면담)

그동안 소연이가 그림책을 거꾸로 놓은 상태에서도 책장을 계속 앞뒤로 넘기는 행동을 반복하고, 그림이 아닌 책장 넘기는 곳에 시선을 두었던 것으로 보아 보드북 형태로 되어 책장을 스스로 잘 넘길 수 있어서 ‘기차 ㄱㄴㄷ’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성인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연이가 글자에 관한 책인 ‘기차 ㄱ니ㄷ’을 좋아하니 글자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도 영아가 갖는 그림책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성인의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그림책 보여주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문제점을 인식하는 과정은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어머니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기초가 되었다.

(2) 다양한 그림책 보기 상호작용 지원

어머니가 문제점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영아에게 있어서 그림책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발달 단계,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림책 함께 보기 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그림책의 내용을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놀이를 하면서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평소 소연이가 좋아하던 까꿍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림책과 놀이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이 담긴 책을 제공하여 어머니와 소연이 간의 생활 속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어머니가 평소에 소연이와 그림책을 볼 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부 읽어주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으므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소연이에게 굳이 그림책의

내용을 똑같이 들려주려고 할 필요는 없으며,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동화를 들려줄 때의 목소리 톤, 억양, 분위기 등에 대한 것도 수정해보도록 하였다. 특히, 소연이는 그림책을 볼 때 의성어나 의태어에 크게 반응을 보이며 따라하고, 그림을 가리키는 행동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어줄 때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소연이는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네.’라고 할 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도 ‘칙칙폭폭이다. 칙칙폭폭~ 터널을 지나가고 있네.’라고 하면 ‘치치~치포~’라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그림책을 보는 내내 입으로 계속 ‘치~ 포~ 치~포~’ 하면서 그림을 가리켰다. 또, ‘자동차도 있네.’ 보다 ‘뽕뽕~ 빠방이 있네.’라고 할 때 ‘빠방~’하고 그림을 가리키며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하루 중에 꼭 그림책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릎에 앉혀서 그림책을 보여주려고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관심에 따라 제시해보도록 하였다. 특히 소연이와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경험한 것인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긴 그림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도록 했다. 이는 소연이가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을 통해 여러 가지 생활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또, 어머니의 이해를 돕고, 도움을 주고자 참고문헌을 통해 ‘책읽어주기 활동 시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 범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자료는 Whitehurst 등의 연구(1988)에서 사용한 분석 기준을 박선훈(1994)가 수정 보완한 것을 김미영(2005)이 사용한 것으로 어머니의 책읽어주기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각각의 예가 정리되어 있다. 다음은 책읽어주기 활동 시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 범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후 어머니와 함께 나눈 대화이다.

오! 이런 거 좋아요! (표를 살펴보다가 부정적인 상호작용 부분을 보며) 어?
 이거 내가 하는 거네. 아..... 거의 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랬구나.
 (긍정적인 상호작용 부분을 보며) 어? 그래도 호응을 잘해줘요.
 어~ 그렇구나~ 하면서 잘 띄워줘요. (웃음)
 (예시에 나온 것을 따라 읽어보며) 아~ 이렇게~ 으음... 근데 정말 이렇게 보
 니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있네요. 잘 읽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해주니깐 너무 이해도 잘 되고 좋아요. 다른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웃음) (2012. 12. 3 어머니 면담)

어머니는 상호작용 유형 범주에 관한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소연이와 그
 립책을 보는 상황에서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연구자의 설명과 함께 자료를 봄으로 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머니는
 상호작용의 예를 소연이에게 말하듯이 직접 읽어보면서 연구자의 지원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소연이가 그림책에 흥미를 느껴하고, 그림책을 좋
 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그림책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에 대
 한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음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
 는 소연이와의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실행방안과 함께 동영상 감상과 연구자의 시범도 병행하였다. 그
 립책을 보여주는 태도나 목소리, 억양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개선을 위해서는
 말로 설명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보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자의 시범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순서를 제공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을 갔을 때 소연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여러 권의 그림책을 함께 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림책을 함께 탐색해보는 것, 그림책의 내용을 활용해 함께 놀이하는 것, 의성어나 의태어를 이용하여 그림책을 흥미롭게 읽어주는 것 등 영아의 눈높이에서 함께 하는 그림책 보기에 대해 이해를 돕고, 참고하여 활용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한 동영상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과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에게 교사가 동화를 들려주는 내용이었다. 이 동영상 속에서 영아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동화에 몰입해 어머니와 영아, 교사와 영아들 간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동영상을 통해 그림책을 읽어줄 때의 태도나 목소리, 억양, 흥미롭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단순한 내용 읽기가 아니라 신체를 만지기도 하고, 그림 속 딸기를 먹여주는 시늉을 하는 등 영아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림책을 읽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은 동영상을 감상한 후 어머니와 나눈 대화이다.

(동영상 속 어머니가 했던 동작이나 목소리를 따라하며) 사랑해 사랑해~

아~ 저렇게...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동화를 읽어줄 때 솔~ 솔~ 이 톤에 맞춰서 읽어주라고. 영국에서 배워왔다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웃음)

(동영상 속 모습을 시연해 보면서) 이렇게 직접 신체도 만져가면서~

(동영상 속에서 본 동화 구연 속 이야기를 잠깐 따라해 본 후)

아~ 저렇게~ 강약을 살려서~ 몸짓도 해가면서~ 이야기 중간 중간 소연이에게 이야기도 하면서~

(중략)

알았어요.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 앞으로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나도 열심히 배워서 소연이한테 해줘야지.(웃음) (2012. 12. 5 어머니 면담)

동영상 감상은 그 속에 나왔던 상황을 통해 어머니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는 동영상을 감상한 후에 그 속에서 했던 것처럼 목소리나 행동을 비슷하게 하고 이야기를 따라 해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지식을 쌓은 후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소연이와의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위와 같이 어머니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방안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행방안을 거치면서 소연이와의 그림책 보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3.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소연이와 어머니의 변화

1) 소연이의 변화

관찰을 시작했을 당시 어머니가 그림책을 보여주고자 했을 때가 아니고서는 소연이가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하여 보는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로 인해 그림책을 볼 때에도 그 지속시간이 짧고, 집중도가 낮았다. 하지만 가정에서 소연이의 그림책 보기를 개선해주기 위해 실행을 실천한 결과 변화된 소연이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그림책에 대한 관심 증가 - 책을 좋아하는 소연이.

일상생활 중에 소연이가 그림책을 선택하여 보는 행동이 빈번하게 관찰되었

다. 소연이는 그림책을 선택하여 책장을 넘겨보며 탐색을 한 후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림책을 넘겨보고,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머니에게 내밀어 함께 그림책을 보고자 하였다. 어머니가 읽어주는 간단한 말을 따라 하였으며, 책장을 다 넘긴 후에도 다시 앞으로 돌려서 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놀이시간 동안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놀이 시간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소연이가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하여 볼 때 집중도가 높고, 지속시간이 길어졌다. 다음은 소연이가 그림책에 집중하여 오랜 시간동안 탐색해보는 모습이 담긴 사례이다.

소연 : (놀이 집 안에 그림책을 가지고 들어가 돌아다니며 볼풀공도 만지고, 까꿍 놀이도 하며 놀다가 집안에 있는 '기차ㄱㄴㄷ' 책을 집어 들고 엉덩이를 붙이지 않은 채 다리만을 구부리고 앉는다. 책장을 계속 넘기며 그림을 응시한다.)

엄마 : (놀이 집 안의 소연이를 보고 책의 기차 그림을 보며) **칙칙 폭폭~ 기차가 달리고 있네~**

소연 : (책장을 모두 넘겨서 마지막에 책을 덮고, 다시 책장을 뒷장부터 넘긴다.)

엄마 : (책장이 펼쳐진 곳에 있는 그림을 보며) **우리 소연이 집도 있네~ 칙칙폭폭~**

소연 : (한동안 그림을 바라보다 집을 가리키며) **지~ 이**
(계속 책장을 앞뒤로 넘겨보는 것을 반복 하다 책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뒤쪽으로 기어간다.) **아~~ 포포~ 치치포포~** (리듬감 있게)

(중략)

소연 : (책장을 앞뒤로 넘기는 것을 5회 반복한 후 책장을 또 넘기는데 책을 손으로 잡지 않고 계속 한 손으로 책장만을 넘기니 바닥에 있는 책이 자꾸 미끄러진다. 그림책을 따라 몸을 움직이며 넘기다가 결국 책을 그대로 두고 집안으로 다시 뒷걸음질로 들어간다.) **오오오~~**
(볼풀공을 만지면서 놀다가 시선을 돌려 다시 책을 보며) **짜자~~**
(책을 놓을 때 세워진 책 한권을 손으로 밀어서 쓰러뜨린다.) **짜잔~**

(자신이 쓰러뜨린 책을 집어 들고 엄마에게 내민 후 무릎에 앉는다.)

엄마 : (책을 펴면서) 뭐하니~? 곰돌아 뭐하니~? 까꿍~

소연 : (책장을 넘기며 그림을 보고 있다.)

엄마와 소연이가 책을 보는데 소연이의 집에 할머니가 방문하였다.

할머니 : 소연아~ 우리 소연이 뭐하고 있어?

소연 : (고개를 들어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다시 고개를 숙여 책을 바라본다.)

(할머니가 몇 번을 불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책을 본다.)

엄마 : 아가~ (그림을 쓰다듬으며) 소연이 같은 아가~

소연 : (아가 그림을 바라보며 엄마처럼 쓰다듬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가~ 아가~

(다시 넘기는데 코끼리 그림이 나오니 손가락으로 코끼리 그림을 만지며) 까~

엄마 : 코끼리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네~

소연 : (고개를 숙여서 코끼리 그림에 얼굴을 갖다 대고 뽀뽀한다.)

(종락)

소연 : (간식을 먹은 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팝업북을 펼친다.)

(책을 짝 펴서 팝업 부분이 옆으로 짝 펼쳐지도록 한다.)

(마지막 하마 부분에서 책을 짝 펼치며 고개를 좀 더 숙여서 그림을 보고 닫은 후 양손의 주먹을 짝 쥐고 몸을 움찔한다.) 아~~

(책을 세워서 위쪽에서 책장 사이사이를 살펴본다.)

위에서 보다가 펼치고 참외 모양이 팝업 된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접은 후 책장을 넘긴다. 이때 책을 책장이 넘겨지는 부분을 위쪽으로 하여 넘긴다. 책장을 다 넘긴 후 주먹을 쥐고 흔든다.)

(2012. 12. 10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연이는 놀이 집 안에서 즐겁게 놀이를 즐긴 후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하여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탐색하였다. 그림책을 보는 동안 다른 놀잇감을 만지거나 놀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림책에 집중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책장을 넘겼으며, 그림책 속에 나오는

그림을 만져보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어머니나 연구자의 권유나 유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 관찰 중 우연히 할머니가 방문하시게 되어 소연이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고개를 돌려보고 미소를 지은 후 다시 그림책을 보며 탐색하였다. 놀이 집 밖으로 나와 간식을 먹은 후에도 다시 놀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림책을 볼 정도로 높은 관심과 집중을 나타냈다. 이렇게 소연이의 그림책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알 수 있는 행동은 놀이 시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소연이는 그림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집 안에서 움직일 때나 외출을 할 때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손에 들고 다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림책을 보는 것과 같은 행동도 나타났다. 다음은 소연이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연구자가 소연이 집을 방문했을 때 소연이가 외갓집에 갔다 집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때 소연이는 ‘옷을 입어요.’ 보드북을 손에 들고 있다. 겹옷을 벗는 동안에도 손을 바꿔가면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 옷을 다 벗은 후에 책을 들고 책장을 넘겨서 본다.)

엄마 : 소연이가 특히 이 책을 정말 좋아해요.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해요.(웃음) 어디 나갈 때도 꼭 손에 들고 가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외갓집 갈 때도 들고 갔다 왔어요.

(2012. 12. 5 어머니 면담)

(연구자가 소연이의 가정을 방문하기 전 아침에 어머니가 메시지로 소연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다. 그리고 연구자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엄마 :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유아프로를 잠깐 틀어줘요.

잠깐 보라고 틀어주면 자기 의자에 앉아서 완전 열심히 봤어요.

그래야 제가 아침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잠깐 보게 하고, 아침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소연이를) 보는데
이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꺼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젠 그래도 책을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연구자가 방문하지 않는 날에도) 보면 그래요. (웃음)

(2012. 12. 10 어머니 면담)

위의 어머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연이는 연구자가 관찰을 하는 동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자주 선택하
고, 즐겨 보는 모습을 보여 주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그림책 보여주기 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소연이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어머니 스스로 반성하고, 소연
이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그림책 보기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었
다.

(2) 다양한 놀이에 그림책 활용하기.

소연이는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하여 책장을 넘겨보거나 그림을 보고 어머니
가 읽어주는 것을 잘 듣고, 감정을 표현해내거나 말을 따라하는 것과 같은 행
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에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실행을 하기 전 소연이가
그림책을 이용하여 했던 놀이는 2~3권 정도를 바닥에 쌓아보거나 한권을 밀어
서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소연이는 이러한 놀이에 크게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
고, 쉽게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다.

실행과정을 거치며 소연이는 책꽂이에 꽂혀있던 그림책을 바닥으로 떨어뜨
리는 놀이를 시작으로 좀 더 다양하게 놀이에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을 즐겼
다. 소연이는 그림책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징검다리 놀이를 했고, 쇼핑백에 그

립책을 넣어서 들고 다녔으며, 자신의 의자에 그림책을 쌓는 쌓기 놀이를 하였다. 이러한 놀이는 어머니의 유도 없이 소연이가 자발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한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음은 소연이가 그림책을 활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것에 관한 사례이다.

<징검다리 놀이>

소연이는 엄마와 함께 ‘모여라 농장 동물’ 책을 보다 책을 엄마에게 내밀고 일어선다. 여러 권의 책들이 바닥에 놓여있다. 잠시 서 있다가 원을 그리면서 걸어 다닌다. 이때 바닥에 있는 매트와 방석을 밟고, 책으로 발을 옮긴다.

소연 :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을 밟았다.) **아쿠~** (웃음)

(놓여있는 책들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돌아다닌다.)

엄마 : (바닥에 있는 책이 미끄러지려고 하자 소연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준다.)

소연 : (징검다리처럼 책을 밟고 걸어 다니며 노래 부르듯이) **어~찌~뿌~도~**

(책을 징검다리 삼아서 밟고 걸어 다니다 책의 끝 쪽에 놓여있는 자신의 스펀지 의자 발판에 발을 뺀어 올라가려한다.)

엄마 : **아이쿠~ 잠깐만~**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것을 도와준다.)

소연 : (의자 발판에서 내려와서 스펀지 의자에 앉는다.) **까~**

엄마 : **우리 딸 의자에 앉았어요!**

소연 : (만세를 부르며) **까~**

(2012. 12. 3 참여관찰)

<쇼핑백에 책 넣기>

소연 : (일어나서 한쪽에 놓여있는 쇼핑백이 있는 곳으로 가서 쇼핑백 안을 본다) **이거 뭐찌?**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쇼핑백을 엄마 쪽으로 가지고 간다.)

어!

엄마 : **어~**

소연 : (바닥에 있는 책을 한 권 집어 들고, 한 손에 책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쇼핑백을 들고 책을 쇼핑백 안에 넣으려 한다.) **어~ 어~**

(그런데 책의 세로 부분을 쇼핑백의 좁은 쪽에 맞추어 넣으려고 해서 책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책을 밀면서 쇼핑백 안에 넣는다.)
(책이 쇼핑백 안에 들어가자 끈 부분을 손으로 잡아 올린다.)
아다지~~ (쇼핑백의 한쪽 끈만을 팔에 걸어 팔을 들어올린다. 쇼핑백 입구가 벌어진 채로 있다. 팔로 들어 올린 채 걸어가다가 바닥에 넘어진다.)

엄마 : 무겁지? 아이구~ 무거워~

소연 : (다시 일어나서 팔에 쇼핑백을 걸어서 들어 올리고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바라본다.)

엄마 : 소연이 어디가?

소연 : (엄마를 바라보고 웃으며 다시 걸어가다가 팔에 걸린 쇼핑백 끈을 만진 후 쇼핑백을 끌면서 돌아다닌다.) (2012. 12. 3 참여관찰)

<그림책 쌓기>

소연 : (책을 모두 넘긴 후 닫아서 들고 일어선다.) **어! 에이~에이~히히~짜자~**
(매트로 갔다가 다시 자신의 의자로 가서 앉는 곳에 책을 놓는다.)
(다시 매트로 가서 책 한권을 들고 의자에 놓는다.) **아자~**
(매트에 있는 책을 한 권씩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의자에 책들을 놓고 손으로 누른다.) **에지~ 으~ 재치~ 으자~**
(책이 떨어지자 계속 책을 올려놓고 손으로 꼭 누른다.) **에치! 으차~**

엄마 : 아이구~ 자꾸 떨어지네~ 엄마가 도와줄게. (책을 올려놓아준다.)

소연 : (다시 매트로 가서 책을 가지고 와서 쌓는다.) 응!

(하지만 작은 책 위에 큰 책을 올려두자 자꾸만 책이 미끄러진다.

다시 미끄러진 책을 올려보지만 아래 너무 작은 책이 놓여있고 이미 많은 책이 놓여있어서 큰 책이 미끄러진다.)

(떨어진 책을 주워서 다시 올려놓고 손으로 누르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으차~**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책이 발에 떨어져 울음을 터뜨린다.)**으앙~**

(엄마가 도와주자 금세 울음을 그치고 모든 책들을 의자 위로 다시 옮겨온다.)

엄마 : (책이 미끄러지자 의자에 놓아주며 도와준다.)

소연 : (계속 매트를 왔다 갔다 하며 책을 의자에 놓고 누른다.) **으~~~자!**

엄마 : **엄마가 도와줄게~ 어때? 괜찮아?**

소연 : (매트에 있는 모든 책을 의자 위에 쌓아놓고, 책을 모두 쌓은 후 박수를 친다.)

엄마 : (박수를 치며) **오~~ 잘했어요!**

소연 : (매트를 돌아다니며 바닥을 본다.) **씨~ 애씨~**

(의자에 있던 책을 한 권 들고 다시 매트에 놓으려다가 다시 의자에 가져다 놓는다.)

(원을 그리며 매트를 돌다가 책을 쌓아놓은 의자를 지나갈 때 책을 손으로 누르고 다시 매트를 한 바퀴 돈다.) **아꾸~ 아꾸~ 까아~~**

(원을 그리며 돌다가 책을 쌓아둔 의자 위에 걸터앉는다.) **까아~~**

(2012. 12. 3 참여관찰)

위와 같은 놀이는 그림책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 평소 소연이가 즐겨하던 놀이였다. 소연이는 짐보리에서 했던 활동을 모방하여 바닥을 밟지 않고 매트나 방석을 밟으면서 원을 그리며 다니거나 가방이나 쇼핑백을 들고 다니거나 그 안에 놀잇감을 넣었다가 빼는 것을 좋아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물건을 의자나 미끄럼틀 계단 위에 옮겨놓는 것과 그 위에 앉아서 숨기는 것을 좋아했다. 소연이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활용하고 있었다. 놀이를 하는 동안 소연이는 매우 즐거운 표정이었고, 노래를 부르듯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각각의 놀이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놀이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어머니의 변화

관찰을 시작할 당시 어머니는 영아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 보기를 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소연이 간의 그림책 보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머니는 소연이가 그림책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걱정하게 되었다. 이에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인 소연이의 그림책 보기를 지원하기 위해 실행을 실천한 결과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1) 놀이하며 그림책 함께 보기.

어머니는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의 글을 읽어주던 모습에서 벗어나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놀이를 즐기게 되었다. 소연이가 그림책을 놀이에 활용할 때에도 예전에는 ‘소연아! 책을 밟는 거야?’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는 소연이의 놀이를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까꿍 놀이를 좋아하는 소연이를 위해 까꿍 놀이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를 많이 해주었다. 처음에 소연이는 그림책 속에 나오는 쥐나 뱀, 호랑이를 무서워하며 까꿍 놀이 그림책을 잘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그림책을 보여주며 재미있는 놀이를 해주자 점점 관심을 보였고 결국 몸을 흔들며 소리 내어 웃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음은 어머니가 소연이와 함께 까꿍 놀이를 하면서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 관한 사례이다.

소연 : (손을 뺏어서 까꿍 놀이 책을 들고 엄마에게 내밀며) 어!

엄마 : 까꿍~~ (책장을 편다.)

소연 : 꺼꾸웅~~

엄마 : 멍멍이 없다~~ (책장을 닫았다가 펴며) 까꿍~~

소연 : 까꾸웅~~ (책장을 넘겨서 그림을 보면서) 까꿍~~ 까꿍~~

엄마 : 까꿍!

소연 : (책장을 계속 넘기면서) 까아 꾸~~웅~~ 까아~ 꾸웅~~

엄마 : 그치~ 호랑이도 없네! 까꿍~

소연 :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서) 까꾸웅~~

엄마 : 모두다 까꿍~~ 모두모두 친구들~ 까꿍~~

소연 : 까꿍~ (책을 덮는다.)

엄마 : (손바닥으로 소연이 얼굴을 가렸다 펴며) 소연이~ 까꿍~~

소연 : (소리 내어 웃으며) ㅎㅎ~ 까꿍~~ 까꿍~~

엄마 : (손바닥으로 엄마 얼굴을 가렸다 펴며) 엄마도~ 까꿍~~

소연 : (소리 내어 웃으며 자신의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펴며) 하하하~
까꾸~~

(2012. 12. 10 참여관찰)

이처럼 어머니와 소연이는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을 보면서도 즐겁게 놀이를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소연이와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그림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소리나 억양에 변화를 주었으며, 책을 덮었다가 펼치거나 그림책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보이는 등 다양한 동작을 하며 까꿍 놀이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소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까꿍 놀이를 매우 즐거워하며 혼자서 책장을 넘길 때에도 입으로 계속 ‘까꿍’이라고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연이가 즐거워할수록 어머니는 좀 더 즐거운 그림책 보기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까꿍 놀이 뿐 아니라 그림책 속의 장면을 놀이에 연계하거나 그림책을 놀잇감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나타냈다.

(2) 영아의 일과와 그림책 연계하기

어머니는 소연이가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나 잠잘 때 그림책을 활용하며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계를 시켰다. 그림책 속에서 여자 아이와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밥이나 간식을 먹는 상황과 연결시켰고, 여자 아이가 잠 잘 준비를 하며 잠에 드는 내용에 관한 것은 잠자리에서 활용하였다. 이는 소연이의 놀이로도 이어지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사례이다.

소연 : (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앉는다.)
 엄마 : ('냠냠냠 맛있다.' 책 들고) 우리 이거 볼까? 냠냠냠~~ (먹는 시늉을 한다.)
 소연 : (책장을 펴면서) 냠냠
 엄마 : 사과 먹는다. 사과! (먹는 시늉 하며) 냠냠냠~~
 소연 : (책장을 넘기면서) 냠냠~
 엄마 : 소연이 좋아하는 고기! 고기~
 소연 : (책장을 넘기며) 냠냠~
 엄마 : (각 장에 있는 음식 이름을 말하며 냠냠냠 한다.)
 소연 : (책장을 넘기며) 냠냠~ (책장을 모두 넘겼다.)
 엄마 : 와~ 다 먹었다. 맛있다~ 냠냠냠~
 소연 : (책장을 닫고 만세를 부른 후 다시 책 뒷면의 그림을 살펴본 후 앞으로 돌렸다 바닥에 내려놓는다.)
 엄마 : 냠냠냠~ 우리 소연이도 치즈 먹을까요? (치즈를 내밀며) 냠냠냠~
 소연 : (일어서서 놀잇감 있는 곳으로 가서 소꿉놀잇감에서 포크를 들고 입에 가져가며) 냠냠~ 냠냠~
 엄마 : (치즈를 입에 넣어주며) 소연이 아까 책에서도 맛있게 먹었지~ 소연이도 냠냠! 냠냠냠 하자!
 소연 : (접시에 얼굴을 대고 먹는 시늉을 하며) 냠냠~ 냠냠~
 (포크를 접시에 찍은 후 엄마에게 와서 내밀며) 아~~~

(2012. 12. 12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는 소연이와 함께 '냠냠냠 맛있다.'를 본 후 그림책의 내용을 언급하며 간식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소연이는 자신이 본 그림책의 내용에 따라 소꿉놀이 장난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는 시늉을 하며 놀이를 하였다. 어머니는 평소에 소연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려 할 때에도 그림책 속에 나오는 장면이나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 예전에는 소연이를 재울 때 잠이 들 때까지 어머니가 자장가와 동요를 계속 불러줬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 잠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쿨쿨쿨 잠자

요.’ 나 ‘달님 안녕’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었다. 어머니가 그림책을 소연이의 일과와 다양하게 연계시켜 활용하면 앞으로 소연이가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긍정적인 상호작용

어머니는 소연이와 함께 그림책을 볼 때 그림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주거나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연이가 좋아하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삽입하거나 운율이 반복되는 것은 간단한 음을 붙여서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려주었다. 소연이가 하는 말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반복해주거나 반응을 기다려주는 모습도 보였다. 또, 그림책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림책을 보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집중하였다. 만약 소연이가 그림책 속의 그림에 있는 한 가지 사물에 반응을 보이면 그림책 속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고, 발음이 정확했으며, 등장인물에 따라 목소리의 변화를 주거나 이야기의 분위기를 살려서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 했다.

다음은 그림책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소연이의 반응에 집중하여 그림책 보기를 전개해나간 것에 관한 사례이다.

소연 : (엄마와 함께 ‘뭉하니’ 책을 보다 강아지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자 그림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누르고 만져본다.)

엄마 : 어? 소연이가 좋아하는 전화기네.

(손가락으로 전화기 모양을 흉내 내며) 띠리리리리~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서연 있어요?

소연 : (엄마를 바라보다 책장을 한 장 앞으로 넘긴다.)
 엄마 : 어? 멍멍아 뭐하니?
 소연 : (다시 책장을 뒤로 넘겨서 전화하는 강아지 그림으로 넘겨 전화기를 계속 만진다.)
 엄마 : (손가락으로 전화기 모양 만들어) 띠리리리~ 어~ 전화하는 종이구나!
 소연 : (계속해서 전화기 그림을 만진다.)
 엄마 : 어? 어디에 전화하지? 고서연 있어요?
 (소연이 얼굴을 보며) 고서연 또 코에서 콧물 나와요~ (웃음)
 소연 : (엄마를 바라보며 웃는다.)
 엄마 : (전화기 모양을 하며) 네~ 지금 고서연은 엄마랑 같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멍멍이 전화하고 있죠? 띠리리리리~
 소연 :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안녕 서연아~ 서연이 뭐하니?
 소연 : (전화기를 손가락으로 누르다가 몸을 당겨서 얼굴을 전화기 그림에 댄다.) 태~
 엄마 : 어~ 어디에 전화해? 띠리리리리~
 소연 : (전화기 그림을 만져보고 책을 두 손으로 잡은 후 책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책을 접어서 귀에 전화기를 가져다대고 받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 책을 다시 펼쳐서 전화기 버튼 그림을 누른다.)
 아~ 짜~ 머멍~ (혼잣말을 계속한다.)
 엄마 :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전화 중이에요?
 (손가락으로 전화기 모양 흉내 내며) 여보세요~
 (소연이에게 손가락을 갖다 대며) 여보세요~
 소연 : (엄마가 갖다 댄 손에 고개를 댄 후 그림을 보며) 아부~ 짜지~ 아~
 (2012. 12. 10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는 소연이와 ‘뭐하니’ 그림책을 보다가 소연이가 전화기 그림을 계속 바라보며 반응을 보이자 전화기 놀이를 하고 있다. 평소에 소연이는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것과 전화가 걸려왔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어머니는 이러한 성향을 알고, 그림책을 보

는 과정에서 소연이가 전화기 그림에 관심을 보이자 그림책의 내용과는 상관 없지만 전화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 소연이는 즐겁게 반응하고 있다. 이 후 소연이가 책장을 넘기자 다시 전화 흉내를 멈추고 그림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상호작용을 이어나갔다.

어머니는 소연이의 반응에 따라서 상황을 이어나가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였고, 어머니의 변화로 인해 소연이도 그림책에 흥미를 나타내고, 어머니와 함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변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연이의 변화를 느낀 어머니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순환과정은 소연이와 어머니 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해내게 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의 가정에서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해주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 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와 관련된 문제점

만 1세 영아의 가정에서의 그림책 보기에 관한 문제점 파악을 위해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물리적 환경 요인과 어머니 요인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그림책 배치나 정리 등 만 1세 영아에게 부적절한 환경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놀잇감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영아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곳에 그림책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부족하였고, 다른 놀잇감에 관심이 분산되어 그림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둘째, 만 1세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만 1세 영아가 스스로 책장을 넘기거나 탐색하기 힘든 얇은 종이로 되어 있거나 전체 페이지 수와 한 페이지에 담긴 글이 너무 많아 그림책에 대한 영아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지속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

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적절한 그림책의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단순히 자녀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주위에서 접하기 쉬운 전집류의 도서나 애니메이션 동화, 삽화와 내용의 질이 떨어지는 책,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한 책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세희, 현은자, 1995). 이에 부모가 만 1세인 자신의 자녀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었다.

셋째, 그림책을 함께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가 부족하였다. 어머니는 영아가 다른 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때나 어떠한 놀잇감에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도 무조건 그림책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리고, 단지 눈이 마주치거나 가까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책에 대한 동기유발 없이 영아를 어머니 품으로 끌어당기거나 불러서 그림책 보기를 시작하려 했다. 이는 영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림책 보기에 몰입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넷째, 만 1세 영아에게 맞는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나 의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어머니는 영아에게 있어 그림책은 탐색의 대상이나 놀잇감이 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아가 그림책을 자유롭게 탐색해보는 과정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그림책에 대해 갖게 된 영아의 관심을 그림책 보기에 대한 흥미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영아의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그 시기 영아들에게 있어서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나 의미에 대해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어머니는 만 1세 영아와의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림책의 내용을 쓰여 있는 그대로 모두 읽어주거나 영아가 미처 감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글을 다 읽으면 책

장을 빠르게 넘기고, 단순히 그림을 지적하며 이름을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그림책을 충분히 감상해보고, 흥미를 느끼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만 1세 영아와 그림책을 볼 때 적절한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알고, 개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그림책 보기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부모지원 실행과정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모를 지원하고자 본 연구자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행과정에서 환경 재정비, 적절한 그림책 제공, 어머니의 문제인식 및 반성적 사고과정, 적절한 상호작용 인식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를 실행방안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세 영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관련 환경을 구성하였다. 놀잇감을 정리하여서 흥미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림책들을 1차적으로 영아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배치하였다. 이는 영아가 다른 놀잇감에 흥미를 분산시키지 않고, 그림책을 책꽂이에서 떨어뜨리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자주 보이는 등 그림책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이 그림책을 떨어뜨리는 것을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는 데 치지 않고, 그림책을 보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1차 방안과 함께 2차적으로 영아가 평소 잘 선택하는 그림책들은 표지가 보이게 배치하였다. 이러한 환경구성은 책보기 영역을 구성할 때 동화책은 책표지의 전면이 보이도록 해주어 유아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삼성복지재단, 1998a; 박홍자, 김미애, 김연진, 권세경, 2001)는 것과 김현희와 박상희(2008)의 영아를 위한 도서영역에서 책의 전시에 대한 부분을 가정의 상황에 적용한 것

이다. 또, 영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을 보이며 주의를 끄는 방법(Schickedanz, 1995 ; 서정숙, 남규, 2006 재인용)을 환경에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구성 결과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이 쉽게 눈에 띄게 되어 영아가 관심을 갖고, 그림책을 선택하게 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Lewin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즉, 영아와 환경은 서로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심현정, 2000). 이는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를 위해 가정에서도 영아가 그림책을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 준다.

둘째, 만 1세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여 제공하였다. 제공된 그림책은 영아의 월령과 흥미를 고려하여 옷과 신발 등 영아가 평소 입는 것들이 제시된 보드북, 까꿍 놀이 그림책, 일상생활 모습 중 잠자는 준비와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담긴 그림책, 소리 나는 촉감 그림책 이었다. 이는 현은자와 김세희(2005)가 제시한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그 준거는 다음과 같다. 영아용 그림책은 외적인 면에서 영아의 신체발달단계에 적합하게 넘기고 조작성이 쉬운 것, 가지고 놀아도 안전하고 견고할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내적인 면에서 그림책 내에서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균형을 맞춘 것, 간단한 이야기 속에 운율과 리듬이 있는 것, 영아가 모방할 수 있는 소리와 행동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영아는 보드북을 좋아하며 스스로 책장 넘기기에 큰 흥미를 나타냈다. 이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아들을 위한 좋은 그림책으로 보드 북, 형견책, 비닐책 등을 이야기 한 김세희(2000)와 Brown(2003)의 연구(최예린, 2010 재인용)와 부합하고, 최은주(2002)의 연구에서 책장 넘기기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을 12~17개월 영아가 대부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 잠자는 준비와 음식을 먹는 일상생활 모습이 담긴 그림책도 자주 선택하여 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사물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친근한 내용을 담은 책을 선호한다는 이민경(2004)의 연구와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관심은 영아가 그림책에 흥미를 가지고,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의 질에 따라 유아의 반응 및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고 이것은 곧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경우(200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제공된 책들 중 까꿍 놀이 그림책은 월령에 적합한 도서 목록에도 제시되어 있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다. 또, 평소 영아가 까꿍 놀이를 즐겨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에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초반에는 까꿍 놀이 그림책에 큰 흥미를 나타내지 않고, 그 속에 등장한 몇몇 동물을 무서워하는 반응도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림책 보기에 대한 흥미가 생기며 자주 선택하게 된 그림책 중 ‘우리 아빠 최고야’라는 그림책이 있었다. 이 책은 스스로 책장을 넘기기 쉬운 것도 아니고, 대상 연령이 만 1세가 아니지만, 내용이 단순하고 그림이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며, 주인공이 아빠라는 친숙한 대상이다. 이는 영아에게 적절한 책의 준거는 ‘일반적인 책의 연령별 난이도 수준을 초월하여 각각의 영아가 흥미 있는 책은 적절한 책이다.’의 개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이송은, 2006)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적절한 그림책 선택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셋째, 어머니 스스로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의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적 사고과정을 가지도록 하였다. 가정에서 영아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에게도 원인이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는 또 다시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만 1세의 영아는 그림책을 보는데 있어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에 성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우선 연구자가 촬영한 그림책 보기 상황에 대한 동영상 감상을 통해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볼 기회를 가졌다. 그 후 어머니의 문제점 인식을 돕기 위해 만 1세 영아의 발달단계와 그 시기 영아들이 갖는 그림책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 방안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왔다.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DeLoache, 1984; Sénéchal, Cornell & Broda, 1995; 이영자, 이종숙, 1996; 김금주, 2000)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현재 발달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어머니의 변화를 이끈 것은 영아의 운동, 언어, 인지 발달을 이해하고 있다는 어머니의 통찰력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에게 적절한 상호작용으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넷째, 어머니에게 적절한 그림책 보기 상호작용을 지원하였다.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그림책 보기 상호작용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듯이 읽거나 운율을 살리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고, 목소리의 톤이나 억양도 그림책의 분위기에 맞게 변화를 주도록 하였다. 또, 그림책을 이용하여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에 연결시켜 적절한 그림책을 읽어주도록 하였다. 이는 Honig(2000)가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책에 나오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흥내를 과장되게 내거나 모든 종류의 톤을 사용하여 재미있게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읽어줄 것, 영아에게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단순화 시키면서 긴 문장을 축약하거나, 글에 변화를 주며,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낼 것 등을 권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가 어머니에게 시범을 보여 주거나 영아와의 그림책 보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감상하고, 책읽어주기 활동 시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 범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머니의 이해를 돕고,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어머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는 상호작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영아는 어머니와의 그림책 보기를 즐거워하였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나타내며 함께 그림책을 보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흥미를 나타내지 않던 예전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림책 읽기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로 상호작용하면 자녀들은 문해관련 활동들에 대해 회피하거나 싫증을 내는 행동을 보인다는 Baker, Scher & Mackler(1997)의 연구(육길나, 2008 재인용)와 책읽어주기에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밝힌 김숙이(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부모가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적절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미영

(2004)의 연구 결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3)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와 어머니의 변화

가정에서 만 1세 영아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지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영아와 어머니는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먼저 영아가 나타낸 변화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하여 보는 빈도가 증가하는 등 영아는 흥미를 가지고 그림책을 자주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림책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어머니가 그림책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림책 보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실행과정을 거치면서 영아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탐색해보거나 어머니에게 내밀어 함께 보길 청했다. 이러한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횟수 증가와 함께 관심이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었다. 영아가 그림책을 보며 의미 있는 성인과 함께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나누는 것은 영아로 하여금 읽기와 같은 경험을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Zeece & Churchill(2001)의 연구 결과(한유미, 2009 재인용)와 맥을 같이 하며 영아가 그림책 보는 것을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칭찬과 격려를 포함한 성인의 반응적 지지를 경험한 영아들은 점차 의존적 독서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혼자서도 탐색하고자 하는 독립적 독서의 태도는 보여주었다는 이송은(2006)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하며, 영아의 그림책 보기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영아는 그림책에 보다 친숙해지면서 다양한 놀이에 그림책을 활용하게 되었다. 실행을 하기 전에는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그림책

을 책꽂이에서 떨어뜨리거나 2~3권 쌓아보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실행과정을 통해 그림책에 보다 친숙해지면서 징검다리 놀이, 그림책 탐 쌓기, 쇼핑백에 넣고 돌아다니기 등 다양한 놀이에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이는 이송은(2006)의 연구 결과에서 영아들은 먼저 책을 외형적 특성에 의한 놀잇감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놀이에 활용한다는 것과 부합된다. 이 연구에서 영아기에 책으로 놀기는 여러 가지 교육적 가능성을 가지는 바, 기존의 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놀잇감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영아와 그림책 보기를 하는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는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영아와 그림책을 함께 보게 되었다. 예전에 어머니는 바르게 앉아서 그림책의 글을 읽어주거나 영아가 그림책을 징검다리처럼 밟으려 하면 행동을 제재하는 등 책이 가진 속성에만 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지지해주며 그림책을 함께 보게 되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까꿍 놀이 그림책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몇몇 장면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던 영아가 어머니와의 즐거운 놀이를 통해 까꿍 놀이 그림책에도 흥미를 나타내며 그림책을 선택하여 보게 되었다. 영아 스스로 책장을 넘기면서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까꿍’ 소리도 내면서 흥미로워 하기도 했다.

이는 Norvell(1973)의 영아는 자신의 관심 여하에 따라 책 읽기 과정을 결정하며, 흥미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김현희 1995 재인용)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영아의 흥미를 자극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촉진시켜주었음을 나타낸다. 또, 영아는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흉내 내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영아의 반응은 Bauer & Hertsgaard(1993)의 영아는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한 행동을 관찰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한 행동을 흉내 내고, 모방을 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 Lamme과 Packer(1986)의 3~25개월 영아에게 책을 읽어줄 때 12개월경이면 언어적 반응은 보다 명료해지고, 동물소리를 낼 경우 언어적으로 흉내 내어 반응한다는 연구결과(이영경, 2000 재인용)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 17개월에서 20개월을 기점으로 ‘스스로 명명하기’, ‘부모가 하는 대로 명명하기’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언어적 읽기 행동 반응이 나타난다는 김금주(2000)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변화로 인해 영아가 그림책을 발달에 맞게 단계별로 경험해나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는 영아의 일과와 그림책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실행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한 책 중 영아가 흥미를 나타낸 잠자는 과정이 담긴 책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책을 활용하였다. 이 책들을 잠을 자는 상황이나 밥이나 간식을 먹는 상황에 연계시켜 활용하였다. 영아는 그림책 속에 반복되는 의성어나 운율에 관심을 나타내며 말과 그림 속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하였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실제 상황에서의 관심으로 이어져 영아의 일과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잠잘 때 읽어주는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따뜻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이룰 수 있고, 스스로 먹고 입는 것과 같은 자조기술의 습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이경우 외, 1997)는 연구 결과와 12개월부터 영아의 일상생활이 담긴 친근한 내용의 사실적 이야기에 흥미를 갖는다(김현희, 박상

회, 1999)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어머니가 긍정적인 변화를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림책의 활용은 나아가 기본생활습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어머니는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주거나 영아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림을 설명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운율을 살리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그림책의 내용에 연연하기 보다는 영아의 반응에 따라서 그림책 보기를 진행해나가는 융통성 있는 태도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영아는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것을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머니의 말을 따라하거나 그림을 가리키고, 이름을 이야기 하려는 것과 같은 그림책 보기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영아가 즐거워하며 어머니와의 그림책 보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자 어머니도 즐거워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예린(2010)의 연구에서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영아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들려주는 양육자도 함께 읽으면서 웃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으면 어머니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어린 영아에게 흘러내려가고, 영아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책읽기,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며, 영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구성이

필요하다. 김정선(2000)은 유아기 때는 그들 주변 환경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학습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하므로 유아교육기관에 있어 물리적 환경은 인적요인과 더불어 유아발달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에서도 영아들이 그림책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접하고, 탐색해보며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하여 영아의 그림책 보기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둘째,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한 그림책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영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조작하는 만족감을 주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의 제공은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주게 된다. 그러나 이영경(2000)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그림책을 구입할 때 친구나 친지의 권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림책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부모가 그림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영아와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위해 영아의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영아들은 대부분 성인을 통해 그림책을 처음 접하게 되고,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림책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영아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어머니의 태도와 상호작용에 따라 영아의 그림책 보기의 질이 결정된다. 이에 부모는 그림책을 보는 과정에서 영아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아가 그림책을 보는 것을 즐거운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의미 있는 그림책 읽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 자신이 영아를 그림책 보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능한 독자로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식하고,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는 전문가가 아닌 만큼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아들과 함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도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 1세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선택하는 방법, 적절한 상호작용 등 그림책에 관련된 부모교육이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이지만 영아들은 월령에 따라 발달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림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다양한 월령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지원해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영아간의 그림책 보기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지원을 중심으로 실행한 연구이지만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식도 반응도 다를 수 있고, 어머니보다 더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연구도 의미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영아의 의미 있는 그림책 보기를 위해 부모를 지원하는 실험연구이기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실행방안을 통해 개선을 돕고 나타난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만 1세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이나 어머니의 상호작용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만 1세 영아가 그림책에 친숙해지는 과정, 그림책 탐구 과정, 그림책 보는 방식의 변화나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유형의 변화 등에 대해 깊

이 있게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그림책 보기 방식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란혜, 곽미영 (2011).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창지사.
- 강화자 (2008). 2세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진숙 (2004).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영아의 반응.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외 (2005). 한국 영아발달 연구. 서울: 학지사.
- 곽노의 (1999). 21세기 유아교육 모델로서 자유 발도로프 유아교육. 서울: 도서출판 밝은 누리.
- 곽노의 (2007). 영·유아 발달. 서울: 양서원.
- 김경희 (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경희 (1999). 발달심리학. 서울: 학문사.
- 김경희 (2005). 노래그림책이 만 2세 영아의 읽기흥미 및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금주 (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놀이·일상·책 읽어주기 상황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숙 (2008). 영아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 영아의 의사소통 전략 : 까꿍 놀이 그림책과 명명하기 그림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 현은자 (1995). 어린이의 세계와 그림 이야기책. 서울: 양서원.
- 김세희 (2000). 유아교사와 부모를 위한 유아문학교육. 서울: 양서원.

- 김영희, 고태순 (2006).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발달놀이치료 모델을 적용한 영아발달 놀이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김정선 (2000). 유아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원, 남규, 서정숙 (2011). 영아문학교육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 김지윤 (2002). 영아를 위한 어머니의 그림책 인식 및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희, 박상희 (2008). 유아문학 이론과 적용. 서울: 학지사.
- 노정임 (2012). 영아-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행동과 12~18개월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마미애 (2010). 만2세 영아반 그림책 보기 활동에 관한 실험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마쓰이 다다시 (1990). 어린이와 그림책. (양상금 역). 서울: 샘터사.
- 박선희, 김현희 (2006). 유아문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박홍자, 김미애, 김연진, 권세경 (2001). 유아 언어교육. 서울: 동문사.
- 백은정 (2013). 대전지역 가정어린이집 만1~2세 혼합 연령반과 단일 연령반 영아의 발달수준 비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삼성복지재단 (1998a). 삼성어린이집 유아프로그램 II(3세). 서울: 교육과학사.
- 서동미, 이옥임, 박지선, 조재은 (2010). 영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경기: 정민사.
- 서정숙, 남규 (2006). 그림책으로 하는 유아문학교육. 서울: 창지사.
- 성지현 (2000). 1세 영아-어머니의 언어와 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명희 (2010). 그림책 읽기 후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영 (2011). 영아의 발달과 보육.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오애순 (2004). 영아의 언어 발달을 위한 그림책 관련 표상활동의 구성 및 적용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진희 (2000).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교사의 언어적 유형에 따른 영아의 반응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화, 조순옥, 김정원, 심은희, 이연규, 이분정 (2003). 유아 언어교육. 서울: 창지사.
- 이대균, 백경순, 송정원, 이현정 (2006). 유아문학교육. 서울: 공동체.
- 이민경 (2004).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경기: 양서원.
- 이상금, 장영희 (2003). 유아문학론. 서울: 교문사.
- 이송은, 이선영 (2005). 유아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송은(2006). 2세 영아의 책에 대한 의미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경 (2000). 영아가정의 그림책 이용실태와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조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자, 이종숙 (1996). 영아의 문해 행동 발달과 영아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 유아교육연구, 16(1), 23-48.
-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제식 (2011). 교육현장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윤숙 (2006). 가정에서의 유아문학경험.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춘복 (2007).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의한 만4세 유아의 그림책 읽기 행동의 변화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춘희 (2005). 유아문학교육. 서울: 동문사.
- 장영희 (2002).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전남련, 강은숙, 나현행, 성은숙 (2012). 영아발달. 경기: 양서원.
- 정남미, 안은정, 이용숙 (2009). 영 ·유아를 위한 그림책과 놀이지도. 서울: 창지사.
- 정명숙 (2012).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의 차이.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 (2012).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선명 (2012). 만2세 영아가 그림책에 친숙해지는 과정.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인아 (2005). 어머니-유아 간 책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읽기동기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지현 (2009).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교사와 영아의 의사소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원 (2008).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언어활동이 영아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유진 (1998). 가정에서의 어머니-영아 간 책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예린 (2010).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경험의 이해.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은주 (2002). 책읽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1세 영아의 상호작용 : 월령과 책의 종류에 따른 비교.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혜경 (2008). 영아의 책읽기 방식 탐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유미 (2009). 그림책 보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2세 영아 혼자, 또래간의 비언어적 · 언어적 행동.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지연 (2009). 그림책 읽기 방식에 따른 영아의 반응에 관한 질적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은희 (2010). 만 1세 영아들의 놀이 속에 나타난 영아-교사 및 영아-영아 간의 상호작용 모습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주연 (2011).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표현활동이 만 3세반 유아의 어휘력, 언어이해력,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uer, P. J. & Hertsgaard, L. A. (1993). Increasing steps in recall of events: Factors facilitating immediate and long-term memory in 13.5- and 16.5-month-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4(4), 1204-1223.

Berk, L. E. (2005). *Infant and Children: Parental through middle childhood*(5th ed). Boston, MA: Allyn & Bacon.

Blakemore, C. & Ramirez, B. W. (2006). *Baby read-aloud basics: Fun and interactive ways to help your little one discover the world of words*. NY: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Bowman, B. T., Donovan, M. S. & Burns, M. S. (2001). *Eager to learn: Educating our preschooler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rain-Thoreson, C. & Dale, P. S. (1992). Do early talkers become early readers? Linguistic precocity, preschool language and emergent liter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21-429.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DeLoache, J. S. (1984). What's this? Maternal questions in point picture book reading with toddler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68th. April 23-27. New Orleans, LA.
- DeLoache, J. S. & DeMendoza, O. A. P. (1987). Joint picture book interactions of mothers and 1-year-old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2), 111-123.
- Denzin, N. K. & Lincoln, Y. S. (2003).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Engel, S. (1997). The emergence of story telling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Zero to Three Journal: National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Washington, DC.
- Fletcher, K. L. & Reese, E. (2005). Picture book reading with young children: A conceptual framework. *Developmental Review*, 25, 64-103.
- Frick (1986). The value of sharing stories orally with middle grade

- students, *Journal of Reading*, 29(4), 300-303.
- Frost, J. L., Wortham, S. C & Reiff, S. (2005). *Play and child development*(2nd ed). 놀이와 아동발달. (양옥승 외 6인 역). 서울: 정민사.
- Garber, J. & Dodge, K. A. (1991).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tch, J. A. (2008). 교육상황에서의 질적 연구 수행하기. (진영은 역). 서울: 학지사.
- Lawrence, R. S. (2011). 유아교사의 그림책 읽어주기: 유아의 문학적 이해 및 문학교육. (서정숙 역). 서울: 창지사.
- Morrow, L. M. (2012). 영 ·유아 문해발달과 교육[*Literacy Development in the Early Years*]. (권민균 역). 경기: 아카데미 프레스.
- Schickedanz, J. A. (1999). Much more than the ABCs: The early stages of reading writing.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ashington, D. C.
- Sénéchal, M., Cornell, E. H. & Broda, L. S. (1995).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parent-infant interaction during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10, 317-337.
- Snow, C. E. (1977). The development of conversation between mothers and babies. *Journal of Child Language*, 4, 1-22.
- Snow, C. & Ninio, A. (1986). *The contracts of literacy: What children learn from learning to read books*. Emergent Literacy. Ablex Publishing.

ABSTRACT

An Action Research on Parent's Role Support for Picture-Book Reading Activities of One-Year-Old Infant

Kang, Min-J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implemented to find out the issues involved in reading picture books for infant of one year old at home and support the role of parents. By observing the situations of reading picture book to the one year old infant and finding out the issues, the improvement plans were sought and executed, and the analysis was made how the infant and mother changed through the process. The research issu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such a purpose was shown as follows.

1. What were the issues related to reading picture book for infant of one year old at home?
2. What was the enforcement plans to improve the issues related to reading picture book for infant of one year old at home?
3. What were the changes of infant and mothers appeared in the

enforcement process for improving the reading picture book related issues?

This study was undertaken at home of Soyeon, one year old girl, in Seoul City with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ing Soyeon, a nephew of this researcher, mother of Soyeon, and this researcher. The period of this research was started on October 15, 2012 and ended on January 9, 2013. During this period, the researcher observed the postures to encounter with the one year old infant naturally during the ordinary affairs and situation of infant and her mother to take a look at the infant, and analyzed the issues related to the reading picture book for infant at home. Based on the cycle model for execution research of self-reflection by Kemmis and McTaggart, the issues were learned under the situation of reading the one year old infant, planned to improve, and went through execution and observation, then went through the reflection process to repeat the circulation process to plan again. In the process of research, the researcher made the participatory observation with the filming in moving picture and collected the interviews with the mother, observer note, reflective journal, photo data and others. On the basis of collected data, it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and the analysis process was made through the procedure in stipulating with advising professor, specialist with rich experience on infant education and mothe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environment factor and mother factor were shown

to be the issues related to the reading picture book. Issues on physical environment at home were analyzed as environment that diverts the focus, one year old infant placed at the location inappropriate for infant, provision of one year old infant not appropriate to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Factors related to mother were analyzed as unilateral reading of infant by mother, lack of perception on the implication of infant as appropriate to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infant and inappropriate interaction.

Second, the improvement plan was executed on the basis of issues discovered for improv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reading picture book at home.

In order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factor, the play tools were arranged to se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one year old infants were provided on the areas available to the reach of infant. As a result, the infant enjoyed the play to drop the one year old infant, but it was frequently not led to reading picture book that the arrangement was made to show the cover of the one year old infant together with providing it at the location reachable for the infant. Also, the interest on the one year old infant was heightened by sequentially providing after looking at the reaction by selecting the one year old infant appropriate to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reading picture book.

For the improvement of the mother factor, the mother was shown with the moving picture filmed on the reading picture book situations to perceive the issues, and the data on the development phase of the

reading picture book was provided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attitude to encounter picture books by infants. Also, the reading picture book was provided with the method to show appropriate one year old infants, plays available by facilitating one year old infants, and types of interaction.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on such information, the moving picture data on the reading picture book situation was appreciated and discussed for having the positive interaction and picture books for infant to naturally enjoy the plays as well as data related to diverse plays for infant were provided.

And, third, the changes of infant and mother shown in the process of execution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issues related to reading picture book were shown as follows.

The infant showed increased interest on picture books. While playing with toys, the infant approached to the area where the picture book was placed to read the picture book or the infant opted for the picture book to provide it to her mother to read together. Also, the infant was frequently observed to familiarize and facilitate the picture book in various ways of playing and it was analyzed as showing its interest in the process of undertaking to play.

The mother played and showed the one year old infant outside of unilateral reading picture book and showed the picture book, and the picture book was naturally linked and facilitated in ordinary living situations. Also, it showed positive interaction by breaking away from the negative interaction shown when reading the picture book for the

infant in early time of research. Method, voice, and intonation to read the picture book were changed and reading picture book was undertaken by looking at the reaction from the infant.

In the research process, the mother made the change into positive direction with the infant also changed to the positive direction, and with the reaction of the infant, the mother made the concerted effort to change into more positive direction in natural ways. This type of sequential reaction was the catalyst to make changes into positive direction with more closeness of infant and mother.